

## 충남도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 해결책 환영... 정부안 수용”

### 정부, 제철소 용광로 브리더 밸브 문제 해결방안 마련

정부가 업계·전문가·시민사회와 함께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용광로 브리더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충남도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환경부가는 3일 제철소 용광로의 조업 중단 가능성을 계기로 논란이 된 용광로 브리더밸브 개방 문제가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여섯 차

레 논의 끝에 해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브리더밸브는 용광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로서 용광로 내부압력이 일정값 이상으로 높아

질 경우 열리며 총 4개의 밸브로 구성된다. 이에 업계는 브리더밸브에서 배출되는 주요 오염물질인 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기 보수

작업 절차 및 공정 개선을 시행한

다. 민관협의체에서 확정된 저감방안에 따라 먼저, 업계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한다.

다음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조기에 중단(예: 최소 3시간 이전)하고, 용광로 내 압력 조절을 위한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4개의 브리더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기술검토(2019~2020년)를 거쳐 현장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는 공정 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저감 이외에도 용광로 이외의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한다. 제강 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열차리로 등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아작시설에 대한 밀폐화 조치 등을 통해 날림(비산) 먼지도 저감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지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하여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에서 배출하는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환경부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미 구성되거나 구성 예정인 협의체와도 이행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민관협의체의 저감방안이후 포스코

및 현대제철 두 업체가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3개 지자체(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업체가 변경신고를 받으면 앞으로 추가적인 위험 발생 여지는 없어지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브리더밸브 문제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앞으로 적정관리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업계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유사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관협의체의 방안이 나오자 충남도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찬배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날 “충남도는 지난 5월 현대제철의 브리더 밸브 인위적 개방에 의한 고로 내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면서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불복해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현재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앞으로 현대제철의 변경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필요한 사항의 조건 부가 등을 포함해 실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계속 중인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거해 대처하기로 했다.

김정환기자



김성구 대전투데이 사장 박정현 대전대덕구청장과 환담 나눈 김성구<사진 오른쪽> 대전투데이 사장은 3일 오후 2시 대전 대덕구청장 집무실에서 박정현 대덕구청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정현은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시한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해 발행하게 됐다”면서 “대덕구 관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쓰면 쓸수록 지역경제에 이로운 효과를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현은 “인근 세종시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서산시 발주 관급자재 선정과정 시의원 개입 의혹 파장

충남 서산시의회 A의원이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개입해 상당한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A 의원의 경우 자신이 추천한 자재가 설계에 반영시키려고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에게까지 강요한 의혹이 일면서 의원이 특정업체 영업사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행정을 견제해야 할 시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행정에 대한 견제는 뒷전이고 돈벌이에 직권을 이용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형태 때문에 성능이 좋고 단가가 저렴한 자재는 외면당할 수 있고 성능은 비슷하지만 단가가 높은 자재가 구매될 수 있다.

의원이 막강한 권력을 악용해,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손을 댄다면 공무원은 꼼작 없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납품업체들의 중론이다.

의원 자신과 연관성이 있는 관급자재 납품은 물론 공사까지 수의계약으로 일괄낙찰 받았을 경우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이를 위해 A의원의 경우 사업개입을 위한 사전 포석을 깔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다는 명분

이래 자신의 사업과 연관된 자재를 방대하게 요청했다는 소문도 있다.

행정을 견제하는 의원이 이권에 개입한 사업은 부실과 과다한 투입으로 시민의 피해와 협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제보자 B씨는 의원이 무슨 영업사원도 아니고 관급자재 구매에 깊숙이 관여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시의원의 힘으로만이 자재선정과 시공까지, 일괄 계약은 쉽지 않다고 고위공직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산시 관계자는 “조달청우수 제품이라고 해도 설계에 반영하기까지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선정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선출직 공직자는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비위 행위는 없는지 감시와 견제를 하라는 시민들의 명령을 잘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시민들이 표로 선출해 준 시의원이 권한을 남용, 사업에 개입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동안 많은 사업자들의 꿈과 희망이 짓밟히고 있다는 여론이 주목 받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 대전시 추경 1944억 원 편성

기정예산 대비 3.8% 늘어난 5조 2849억 원

대전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액 대비 1,944억 원 증액된 5조 2,849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조 1,631억 원 보다 1,340억 원(3.2%) 증액된 4조 2,97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03억 원(6.5%) 증액된 9,579억 원

이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난 8월 정부추경에 따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전년도 결산잉여금 등 1,340억 원 규모다.

이번 추경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감소 등 국내외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추경과 연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미세먼지 방지 등 국비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4차산업혁명 특별시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민선7기 약속이행을 위한 바이오 신성장사업, 평생교육 시설 설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등 자체 발굴사업 이외에도, 일일수출규제 등에 대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창업자금 지원, 초·중·고 교육 패키지, 민간주도형 지역기업 육성, 고용우수기업 청년 채용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비중을 뒀다.

대전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 및 고용안

정, 미세먼지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추경인 만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며, 10월 예산안 확정 후 추경예산 효과가 신속히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사업 집행절차를 조속히 진행시켜 올해 안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9월 17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 245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10월 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태선기자









#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융합적 인재 육성



**과** 학의 도시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남대학교 (총장 이덕훈)는 개교 63주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1956년 미국남장로교 선교부는 한국에 최초로 '대전대학(대전기독교대학)'이라는 이름의 종합대학을 설립하였는데, 이후 1970년 서울을 숭실대학교와 통합해 숭전대학교로, 1982년 다시 분리돼 지금의 한남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됐다. 현재는 충청권 대표 사립대학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8개의 단과대학, 3개의 독립학부, 53개의 학과·전공에 약 1만7,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한남대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0만여 명의 인재를 배출해온 교육 요람으로서 부동의 대전·충청지역 1등 사립대학으로 손꼽히고 있다.

◆창업지수 전국 4위 · 브랜드평판 전국 31위  
한남대의 슬로건은 '학생제일, 창업최강 (Student First, Startup First)'으로, 전국 최상위권의 창업대학으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6월 전국 247개 4년제 대학(국립 포함)을 대상으로 평가한 '2019 대경 대학창업지수'에서 전국 4위에 올랐다. 2017년 처음 대학창업지수가 발표됐을 때 50위권 밖이었지만 지난해 15위, 올해 4위를 차지하면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남대의 브랜드 평판도는 전국대학 31위를 차지했다. 2019년 대학교 브랜드평판 4월 빅데이터 분석결과(한국기업평판연구소) 전국 31위를 차지했으며, 대전권 대학 가운데 1위에 올랐다.

◆학생 1인당 장학금 381만원  
최근 한남대 이덕훈 총장이 전용차를 반납하고 만든 '다니엘 장학금'이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4년째 도보로 출퇴근하고, 해외출장 시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면서 절감한 예산 연간 1억 5,000여만 원을 학생 장학금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다. 한남대에는 다니엘 장학금을 비롯한 111종류의 장학금이 연간 총 430억 원에 이른다. 2018년 정보공시 기준으로 재학생 중 약 70%(8,162명)가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41%(4,779명)는 등록금의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받는다. 전액 등록금 수혜학생은 33%에 이른다. 학생 1인당 평균 약 381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다.

2019년 첫 시행된 '한남아너스프로그램'은 입학성적이 우수한 신입생 약 50여 명을 선발해 졸업 때까지 집중지원한다. 4년간 전액 장학금은 물론 학업장려비 100만 원을 지원하며, 장학금 중복 수혜 제한이 없다. 해외단기어학연수단 파견 시 체재비·수업료 지원, 기숙사 우선배정, 전담지도교수, 맞춤형 영어특별강좌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48개국 251개 자매대학 세계를 품다  
미국 선교사들이 설립한 대학답게 한남대의 글로벌 마인드와 외국어 수준은 정평이 나 있다. '외국어가 강한 대학'으로 유명하며, 세계 48개국 251개 자매대학과 활발한 해외교류를 하고 있다. 교수·학생·직원교류, 공동프로젝트 진행, 심포지엄 개최, 연수단 파견 등 폭넓은 국제교류를 하고 있으며 연간 360여 명의 학생을 선발해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의 자매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하고 있다. 캐나다 프로비던스 대학교는 3+1의 복수학위제를 운영, 한남대와 자매대학의 학사학위를 동시 취득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설유망학과  
한남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융합적 인

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4개의 학과를 신설하고 미래사회를 열어갈 인재를 모집한다.

스마트융합공학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엔지니어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2학년 부터 '스마트IoT전공(사물인터넷)'과 '스마트시스템전공(지능로봇 등)'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해당 전공의 기반 및 연관 기술을 익히기 위해 공과대학내의 참여학과 중 1개의 학과를 선택해 이수해야 한다. 즉, 융합학문에 대한 제1전공과 전통적인 공학분야에 대한 제2전공 학위를 복수로 취득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융합적 및 연계적 기술자로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빅데이터응용학과도 개설된다.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변화와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대용량의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 분석, 해석하고 데이터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이론적 토대와 활용 방식을 학습하게 된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빅데이터 전문가의 꿈을 키울 수 있다.

상담심리학과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의 심리적 문제와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상담심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다. 사회적 공감 능력, 봉사정신, 다양한 문화 계층에 대한 포용력 등을 토대로 갈등 중재와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졸업생은 향후 상담심리 및 임상심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청소년 상담 및 지도, 심리상담, 임상심리, 학교, 공공기관, 기업, 경찰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사회적경제기업학과는 나눔과 공유의 경제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전문가를 양성한다. 사회적경제 분야는 좁게는 도시 재개발, 인구문제, 장애복지 등의 지역사회 문제와 넓게는 개도국의 빈민문제, 여성과 어린이 학대문제, 지구촌의 자원고갈 및 이상기후 등에 이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로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공적기구, 국제기구의 동참 등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이론 학습과 실천교육 등을 진행하며 신입생 전원에게 1년간 장학금(수업료 30%)을 지급한다.

◆창업이 강한 대학 체인지 메이커 양성  
한남대는 '창업최강 대학' 실현을 위한 창업클러스터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창업 친화적인 캠퍼스를 구축했다. 창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만 있다면 각종 창업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링 프로그램, 캠프 참여 등을 통해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가 적극 지원한다. 학생들이 실제



창업에 도전해볼 수 있는 실전 점포 및 사무공간인 '창업존 (Charge) up Zone'을 오픈하고 창업 컨설팅 합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창업활동과 생활공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창업형 기숙사도 만들었다. 창업존 근처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창업기숙사는 창업 학생들이 365일 24시간 창업에만 몰입할 수 있는 차별화된 몰입형 창업보육 공간이다. 한남대는 또 사회에 대한 공감과 나눔, 협업, 창의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통해 사회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체인지 메이커'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공헌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에 앞장서도록 서비스러닝과 소셜러닝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 <한남대 이렇게 뽑습니다>

### 한남대 인재상과 수시전형 특징

한남대의 교육목표는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우리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신입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학과 교수님들과의 집중상담을 통해 대학생활 및 학업, 진로, 취업 등에 대한 지도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다 선제적으로 학생의 진로를 결정하여 자기주도적인 대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 다양하게 제공되는 학사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학생의 진로를 재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한남대는 수시모집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88.6%인 53개 학과(전공, 총 2,518명(정원)의 포함을 모집합니다. 우리대학 수시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학과가 문과, 이과 상관없이 교차지원이 가능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형간 소화 차원에서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실적위주 등 3개의 전형만을 운영합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성적만 100% 반영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은 1단계 서류종합평가와 2단계 면접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서류종합평가에서는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학업성취도와 전공적합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면접평가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수험생의 인지기 · 정서적 · 행동적 역량을 검증하는 서류 확인면접으로 진행합니다. 실기/실적위주전형에는 체육특기자전형, 디자인특기자전



<김건호 한남대 입학홍보처장>

원 '지역인재교과우수자전형'도 2020학년도 입시에서는 전교과 전과목 반영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지역인재교과우수자전형'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지역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수험생 본인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해당 지역 고교에 재학(졸업)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남대가 선발하려는 학생은 첫째로 고등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해 왔다고 자부하는 학생, 둘째로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특히 주목하는 인재는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실패나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도전하는 한남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학생이 대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남대가 추구하는 창의적 글로벌 인재로 성장발전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년별 성적 반영비율은 3학년 성적 40%, 1학년과 2학년 성적은 각각 30%씩이며, 석차등급(1~9등급)이 부여된 전교과 전과목을 반영하는데, 주의할 사항은 전년도 입시에서 석차등급 상위교과를 선택 반영했



Student First

## 한남대학교 교육사랑 5계명

- ✓ 수업 중 학생의 질문이 엉뚱해도 무안주지 않기
- ✓ 학생과 상담할 때는 마실 때까지 웃으며 공감하기
- ✓ 교수가 가는 길은 시대동행이 감입을 잊지 않기
- ✓ 좋은 교육은 훌륭한 연구와 함께 함을 잊지 않기
- ✓ 교육은 항상 따뜻한 부모의 마음으로 수행하기

2020학년도 수시모집 : 2019.9.6(화) 09:00 ~ 9.10(토) 19:00  
입학문의 : 042) 629-8282 <http://bsi.hnu.kr>





• 특 정 •

사회복지시설 방문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4일 오전 9시 25분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 시설(송강사 회복지관 등 2곳)을 방문, 위문한다.

대전 YMCA 로컬푸드 한마당 축제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4일 오전 10시 40분 남산공원체육관에서 열리는 대전 YMCA 로컬푸드 한마당 축제에 참석.

추석맞이 전통시장장보기 행사



황인동 동구청장= 4일 오후 5시 대전중앙시장 일원에서 2019년 추석맞이 전통시장장보기 행사 개최.

확대간부회의 주제



박용강 대구구청장= 4일 오후 4시 30분 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확대간부회의' 주제.

추석맞이 전통시장장보기 행사



장종태 서구청장= 4일 오후 2시 도마큰시장과 한민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장보기 행사에 참여한다.

유성형 마을 발전계획 보고회



정용래 유성구청장= 4일 오전 10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유성형 마을 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한다.

9월 구정전략회의 주제



박정현 대덕구청장= 4일 오전 9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9월 구정전략회의를 주제, 오전 11시 구청 청렴관에서 열리는 사랑의 한가위 송편 불고기 나눔행사에 참석.

혁신도시 지원 사업 '오픈랩' 추진

5세대 이동통신기반 사물인터넷 모바일 분야 집중 육성

대전시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사업인 '오픈랩' 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그동안 혁신도시가 있는 10개 시·군·구(세종, 충남, 광주)가 새롭게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오픈랩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10개 혁신도시 지역의 산업 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에 개방형 연구실인 오픈랩을 구축하고 오픈랩과 연계한 기술개발, 기업지원, 네트워킹 지원 등 지역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종합지원 사업이다.

그동안 대전, 충남, 세종은 혁신

도시가 아니라라는 이유로 오픈랩 사업을 지원 받지 못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결과 추가가 선정됐다.

대전시는 오픈랩 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산업 분야의 핵심인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분야'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런 선정으로 대전시는 총사업비 71억(국비 50억 포함)을 투자해 2022년까지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 협력해 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5G IoT) 모바일 오픈랩을 구축하고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모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대전테크노파크

가 주관하고, 지역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카이스트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내 산·학·연·관 혁신플랫폼이 구축되고, 기존 대표산업인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이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문창용 과학산업국장= "이번 오픈랩 사업 선정으로 그동안 대전시가 혁신도시에서 배제돼 받았던 불이익이 조금이나마 해소됐다"면서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정보통신기술 산업이 지역의 대표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대덕e로움 홍보마케터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운영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2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지역화폐 대덕e로움 홍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덕e로움 홍보마케터 기간제 근로자 발대식을 가졌다.

대덕구민으로 구성된 홍보마케터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28명이 채용됐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근무하게 된다. 마케터들은 지역화폐 대덕e로움 사용자 확산을 위한 홍보, 찾아가는 현장발급, 특별가맹점 모집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발대식에 참석한 마케터들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출사된 대덕e로움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자리가 없던 차에 좋은 기회를 갖게 돼 기쁘고, 시급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대덕구 생활임금을 적용받아 가계소득에도 큰 도움이 돼서 좋다"고 말했다.

박정현 구청장은 "대덕e로움 발행액이 당초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액된 만큼 더 많은 주민과 대전시민이 대덕e로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터가 열정적으로 많은 업무에 수행해 줄 것"이라 말했다. "마케터는 대덕e로움은 물론 대덕구 홍보대사로서 주민접점에서 근무하는 만큼 자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덕 마을교육공동체 동아리 공모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2019 대덕 마을교육공동체 동아리 공모'를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동아리 공모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인 청소년·교직원·마을교육활동가 등의 자발적 활동의지에 기반을 둔 다양한 주제의 동아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참여주체를 발굴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신청대상은 대덕구 관내에 생활권을 두고 학술, 체육, 미술, 음악, 문화, 지역탐구 등 공모 성격에 부합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인 5명 이상 동아리로, 영리를 위한 사업, 정치성이나 종교성을 띠는 사업,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 등에 중복지원 받는 사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동아리는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을 대덕구청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여 원본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choch83@korea.kr)로도 스캔파일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는 대덕구 교육공동체과(042-608-6372, 6373)로 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결정되며, 동아리 활동 기간은 보조금 지원 시부터 11월 29일까지이다.

총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동아리별 지원액은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대덕의 아이를 대덕이 키우는 대덕 혁신교육지구는 어느 한 주체의 노력 이 아닌 청소년, 교직원, 마을교육활동가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뿌리내릴 수 있다"며 "이번 첫 공모를 통해 대덕 마을교육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주체들이 성장하며 참신한 사업을 선보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구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강)는 3일과 4일, 이틀동안 청사 대회의실에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한국범죄학연구소 민수진, 영건형 강사가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직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른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성폭력 실제 주요사례와 이에 따른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며 참석 직원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최근 자주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관련 사례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

지원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교육을 함께 들은 박용강 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건전한 조직 문화가 더욱 굳건하게 자리잡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폭력 예방교육으로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지난 7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개정하고,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태선 기자



탄동농협 상호금융대출 건전여성 3000여 달성탑 수상. 탄동농협이 농협중앙회에서 시상하는 상호금융대출 건전여성 3천여 달성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용석 농협대전지역본부장(왼쪽)이 3일 본부 운영협의회실에서 이병영 탄동농협 조합장(오른쪽)에게 상호금융대출 건전여성 3천여원 달성탑 시상식용 기부 촬영을 하고 있다.



저소득가정 추석 명절 지원금 전달

유성구,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전달식 가져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3일 구청 행복사랑방에서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무처장 박용훈)로부터 저소득가정을 위한 추석 명절 지원금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지원되는 금액은 총 985만원으로 유성구 저소득 가정 197세대에 5만원씩 전달돼 추석

명절 준비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지원금 전달로 명절에도 우리가 있지 않아야 할 어려운 이웃들이 힘들고 외롭지 않게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충남대병원 간호부, 추석맞이 이웃돕기 사랑의 쌀 기탁. 충남대학교병원 간호부(부장 김희정)는 3일 추석명절을 맞아 대전 중구 대시동 주민센터와 문화1동 주민센터에 쌀 900kg을 기탁했다.



돈산라이온스클럽, 대전복지관에 한가위 물품 후원. 돈산라이온스클럽(회장 김학진)은 3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미)을 방문, 한가위 후원물품(라면 15박스)을 기탁했다.

학교 주변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서구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가을 개학을 맞이하여 6일까지 소비지식홍감시원과 합동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 음료, 빵, 분식 등을 판매하는 학원가 및 학교 주변 문방구, 분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51여 개소다.

또한, 학교 주변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진열·판매 여부, 조리·판매시설 등 위생적 관리 여부 및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 고열량·저영양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학교내 판매 여부,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카페인 바로알기 캠페인을 통해 카페인 함유 식품 확인 방

법과 과잉 섭취시 부작용 및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등 홍보와 더불어 식중독 예방과 영업자 기본안 전수칙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안전 확보를 통하여 안심 구매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가스 화물차(1톤)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

미세먼지저감 위해 6억4000만 원 투입, 16~20일 접수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1톤) 신차 구입 보조금으로 6억 4000만 원(160대)을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은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1톤)를 신차 구매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과 함께 신차구입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며, 신청기간 내 일괄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지원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14일 이내 신차구입 계약서를, 4개월 이내에 신차등록 후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대전시는 생계형 노후경유차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영세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원자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이

다.

대전시 노용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생계형 화물차(1톤)를 구입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또, 앞으로도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8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부터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40대의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을 지원했다.

김태선 기자

대덕구, 추석명절 대비 축산물 특별점검

오는 9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판매업소 등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에 대한 '추석명절 축산물 특별점검'에 나선다.

지난 26일 시작된 이번 특별점

검은 국내 축산물 최대 생산기인 추석 명절을 대비해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냉동식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축산물 원산지(이력제) 거짓표기 ▶축산물 생산·유통 과정에서의 비위생적 취급행

위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에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위생 감시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동구 '국립 호국 철도박물관 유치' 제70차 동구포럼 개최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3일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에서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호국철도박물관 유치 방안을 주제로 제70차 동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6.25 전쟁 당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고(故) 김재현 기관사를 비롯한 철도영웅들을 기리는 한편 철도 관광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국립 호국철도박물관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손운락 전 코레일 오송센터장의 기조발표 후 배은선 코레

일 송탄역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기적 견해가 담긴 유치 방안을 내놨다.

정예성 미래철도연구원장은 대전은 역사적 당위성으로 보나 제반 조건으로 보나 철도박물관 유치 최적지임을 역설했고 그 뒤를 이어 강정규 동구의회의원, 임상일 대전대학교 교수, 강병규 황간역 명예역장, 조성호 트레인스쿨 대표 순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동구포럼은 지난 1999년 7월부터 시작해 70회째를 맞고 있으며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 공감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방안 제시를 통해 지역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김태선 기자







우리/동네



천안시, 김부겸 국회의원 초청 특강

고유한 지방자치 모형 개발 위한 의미 있는 행사 마련

천안시는 3일 시청 봉사홀에서 열린 월례모임에서 구본영 천안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김부겸 국회의원의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내다보고자 마련됐다.

특강에서 김 의원은 지방자치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강조하고, 지역균형발전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편 천안시는 다가오는 자치분권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천안시 자치·분권 모형개발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이며, 지속가능하고 실행가능한 정책과제와 로드맵, 단계적 실행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와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는 행정체제 ▲민주적 지방정부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제도 ▲시민교육 실행·활성화 방안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내재적 지역발전 역량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사랑의 헌혈'

공단 임직원과시민 등 22명 참여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원식, 이하 공단이 2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개최했다.

헌혈인구 감소와 여름철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22명의 공단 임직원들과 시민들이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혈액공급이 어려운 하절기와 동절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헌혈 행사를 진행하며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원식 이사장은 "헌혈을 통해 봉사정신을 실천하고 혈액수급에 도움을 준 임직원과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단은 앞으로도 헌혈행사를 비롯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천안시 직산읍-니누리 자원봉사회

추석 맞이 무연분묘 벌초행사

천안시 직산읍(읍장 정환기)은 지난 1일 니누리 자원봉사회(회장 이원희)와 함께 부송리 및 군서리 일원 118기 무연분묘를 대상으로 벌초작업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원희 회장은 "니누리봉사회는 10여 년 전부터 직산읍과 함께 무연분묘의 자손들을 대신해 벌초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효사상을 바탕으로 조상의 묘를 살피는 전통을 계승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정환기 읍장은 "무연분묘 벌초작업을 꾸준히 실천해주시는 니누리 자원봉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훌륭한 미풍양속이 계승되길 바라고, 이 행사가 민족의 명절에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온정을 나누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상반기 고용률 전년보다 2.8% 상승

천안시, 동기 대비 청년 고용률 7.1%p · 중장년고용률 4.5%p 높아져

천안시 올해 상반기 고용률, 취업자 수, 청년·중장년 고용률 등 고용지표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와 통계청의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에 따르면 천안시 올해 상반기 고용률은 64.8%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8%포인트 높아졌다. 취업자 수도 37만25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6500명 증가했다.

청년층 취업자(15~29세) 수는 6만6800명으로 1만2000명 증가해 청년 고용률이 7.1%포인트 올랐다.

중장년(50~64세)의 고용률 또한 전년 대비 4.5%포인트 상승했다.

시 전체 고용률은 64.8%로 전국 60.5%보다 4.3% 높았다. 실업률은 3.1%로 전국 4.3%보다 낮았으며 전국 50만 명 이상 시와 비교해도 고용률은 높았고 실업률은 낮았다.

고용률이 높은 원인으로는 계층별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추진, 양질의 일자리 발굴시책과 기업지원 확대, 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4차 산업·우량 기업 유치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청년층일자리를 위해 청년역량강화 연계 일자리 지원,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4차 산업 혁명

시대 청년 창업가를 양성, 청년내일 채용공제 지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기숙사와 청년임대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청년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청년면접장장 무료 대어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장년층 일자리를 위해서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전장부품인력양성사업 및 경력단절여성 멀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추진하고, 지난 6월에는 중장년 일자리포럼을 개최하는 등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시는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미래성장 창출 드론산업 육성, 청년스마트타운 조성, 역세권 R&D집단지구 조성 등 지속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 청년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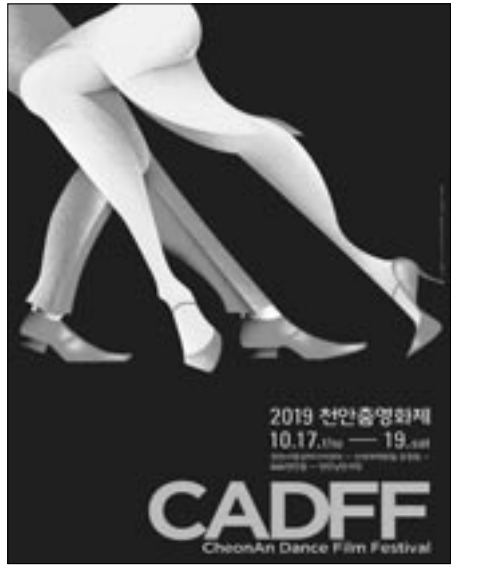
구본영 시장은 "민선7기 임기 동안 일자리 12만개, 고용률 67.5%를 목표로 시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산업·주거·고용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동정 확대간부회의



구본영 천안시장= 4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9 생명사랑 문화제에 참석.



2019 천안춤영화제 10.17.18-19.20

2019 천안춤영화제 1500여편 출품 완료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리는 '2019 천안춤영화제'의 단편영화 공모전에 총 1568편, 94개 국가의 영화가 출품돼 영화제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인수)이 주최하고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와 천안춤영화제 추진위원회위원장(민경원) 주관, 천안시가 후원하는 '2019 천안춤영화제'는 신세계백화점충청점 문화홀, CGV천안점, 인디플러스 천안, 천안남만극장 등에서 열린다.

천안춤영화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춤을 소재 또는 주제로 한 40분 미만의 단편영화를 온라인을 통해 공모했다.

이번 공모전은 2010년 천안영화제를 추진한 이래 가장 많은 영화가 출품되는 기록을 남겼다. 그중 가장 많이 출품된 국가는 미국, 인도, 이란 순이며 한국 작품은 총 67편이다.

1차 심사를 통해 상영작 40여 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발하고, 이들 중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작인 대상(1편/500만원), 최우수상(1편/300만원), 우수상(2편/각100만원)을 선정한다.

본선 진출작은 천안춤영화제 현장 곳곳에서 상영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10월 17일 오후 6시 30분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5층 문화홀에서 진행되는 천안춤영화제 개막식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천안춤영화제는 개막식과 폐막식을 비롯해 춤을 주제·소재로 다룬 다양한 영화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근력운동

· 체중관리 교실 참여하세요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오는 6일까지 '근력튼튼 건강교실'과 체중관리 프로그램 '지방 내리고(go) 건강 올리고(go)'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력튼튼 건강교실은 노인들의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는 하체강화운동, 오타고 운동, 소도구를 활용한 운동, 차매에방에 좋은 코그니시이즈 운동 등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기간은 9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화·목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서북구보건소 4층 프로그램실에서 운영된다. 60세 이상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20명 모집한다.

'지방 내리고(go) 건강 올리고(go)'는 맞춤형 순환장비를 이용해 근력운동과 매트 운동, 인터벌 트레이닝, 코어 운동 등의 다양한 운동 방법으로 개인 체형에 맞는 체중관리법을 제안한다.

모집 대상자는 체지방률 35~50% 미만인 30대~50대 서북구 여성으로, 서북구보건소 3층 통합건강상담실로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인구 100만 대비 및 편리한 대중교통도시로 전환

2일 수도권전철 3개 역사 신설, 신교통체계 중장기 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개최



천안시가 지역 내 수도권전철 신규 역사 설치를 검토하고, 인구 100만에 대비하는 신교통체계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2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구본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전철 부설지역 외 2개 지역역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와 '천안시 신교통체계 중장기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수도권전철 경부선축의 지속적인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를 고려한 3개의 역사를 신설하는 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과 장래 인구 100만명에 대비한 전환경 대중교통수단의 도입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추진된다.

부설지역 외 2개 지역역 신설 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은 ▲장래 신설역 교통수요 예측 및 편이분석 ▲역간 거리의 적정성 등 역 신설에 따른 기술적 검토 ▲건설비, 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사업비 산정 ▲경제성, 재무성 분석 ▲재원조달 방안 등이다.

신교통체계 중장기 계획은 ▲천안도시간 교통의 특성 및 문제점 분석 ▲국내 및 국외의 신교통체계 사례 검토 ▲신교통체계 중장기 계획안 구상 ▲적정 차량시스템 검토 ▲연계 수송체계 구축방안 ▲재원확보 방안 및 사업추진 체계 등을 수립하게 된다.

역 신설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김항배

남서울대학 교수는 보고회에서 관내에는 6개 수도권전철역이 있으나 장래 3~4개역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부설지역의 청주시역에는 역이 반드시 필요해 즉시 추진할 것을, 나머지 역은 주변의 개발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신교통체계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수도권전철이 도시를 종단으로 운행해도 철도수송 분담율이 35%정도 불과하며, 동서축 방향으로 도로, 철도의 교통시설이 취약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천안시가 추진 중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수도권전철 독립기법관 연장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함은 물론 신교통체계의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구본영 시장은 "이번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기초조사와 실태를 파악해 역 신설 타당성과 신교통체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최적의 교통인프라를 제공하는 한편, 앞서 가는 교통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추석 대비 가격표시제 등 합동 지도 점검 나서

물가인상 우려시기에 시민이 많이 찾는 유통가 집중 조사

천안시가 4일 추석 명절을 대비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지도 점검에 나선다.

시는 명절을 앞두고 물가인상이 우려되는 시기에 대형마트, 전통시장, 편의점, 대형 유통그룹 슈퍼마켓(SSM)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부당한 가격인상, 담합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처벌보다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지도 점검 외에도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부담 인상을 감시하기 위한 가격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성수품과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격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구본영 시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판매 등의 다양한 유통거래가 활발해졌다"며 "관련 부서 지도점검 등을 강화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꿈드림, 제2회 검정고시 합격률 97% 달성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및 집단 프로그램 등으로 청소년 84명 검정고시 합격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이미원)은 지난달 7일 시행된 올해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꿈드림 청소년 84명이 합격해 97% 합격률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업 복귀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검정고시 합격을 지원하고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나내 인생의 매니저' 집단 프로그램 ▲검정

고시 대비반 ▲무료 인터넷 강의를 운영하고 있다.

검정고시 대비반은 학습에 전문적이고 열정적인 멘토 선생님을 섭외해 기초학습부터 심화 학습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천안시 꿈드림에서 2년째 활동 중인 최경아 멘토는 "검정고시만 합격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수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며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노력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 하늘그린 거봉포도 "호주로! 세계로! 수출확대"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올해 200톤 수출목표, 농가소득증대 기여



천안의 30여 개 농가가 재배한 거봉포도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지난달 6일 호주를 시작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으로 뿔어 나가고 있다.

천안시와 천안포도영농조합법인은 3일 성거읍에 위치한 천안포도수출전문유통센터에서 조합원과 수출 관계기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 하늘그린 거봉포도 수출 전석식'을 열었다.

포도영농조합법인은 올해 40톤(2만4000박스)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이번에 호주, 미국, 캐나다로 수출하는 포도는 캠벨과 거봉포도 2종으로 수출 선적 물량은 15톤(8만9000박스)이다. 그동안 법인은 내수시장 불황과 포도재배 농가의 영농의욕 저고,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극복

하기 위해 호주, 미국, 캐나다 등으로 수출하는 전문단지로 지정받아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거봉포도, 사인마스켓 등 고품질 포도 200톤 수출을 목표로 수차례의 현지 바이어와의 회의, 포도재배 매뉴얼 제작 및 농가교육, 전농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전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 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수출단지로 지정 받은 호주시장으로의 수출확대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며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시 하늘그린 거봉포도는 고품질 우수농산물로, 맛과 향이 좋아 고빈뿐 아니라 현지인에게도 인기가 좋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천안=이정복기자



#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위해 공동 대응”

## 대전·세종·충남지역 시민단체, 개헌 위해 공동 대응 나서



**보령해경, 긴급구난 공동대응팀 유류이적 훈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해경-공단 긴급구난 공동대응팀 유류이적 훈련'을 지난 29일 오후 2시부터 서천군 장항항에서 해양환경공단 군산지사와 합동으로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서천소방서, 피난약자시설 불시출동훈련** 서천소방서(서장 최정일)는 2일 오후 동서천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불시출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불시출동 신고 접수 후 현장 도착까지의 최단거리 출동로와 건물구조·소방시설·인접 소화전 위치 등을 파악해 신속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산소방서, 고품질 구급서비스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3일 아산충무병원, 다온미래산부인과, 삼성미즈산부인과, 및 청아미즈산부인과와 구급대원업무협약 확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대전보호청, 새로남교회와 참전유공자 명패 달아** 이남일 대전지방보호청장은 3일 오전 오정호 새로남교회 담임목사와 함께 6·25 참전유공자 이명배 응(만 90세, 대전 서구 둔산동)을 방문, 명패를 달아드렸다.



**청양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해단식 행사** 청양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지난 3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한 119시민수상구조대 해단식을 가졌다.



**원신흥동새마을부녀회, 새마을이동빨래방 운영** 유성구 새마을부녀회(회장 김경옥) 산하 원신흥동새마을부녀회(회장 최경혜)는 원신흥동내 경로당을 찾아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한끼 먹는 '모두 모여 한끼먹쇼'를 진행하고 있어오는 어르신 8가정의 이물세탁을 3일 오전 9시부터 새마을이동빨래방차량을 운영했다.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시민단체가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지방분권 총남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는 3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상생 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청권 공대위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강화하는 한편,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지만,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반도체 플러스터 수도권에 위치한 용인에 유치하고, 혁신도시 지정에서 대전과 충량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 또한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권 공대위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핵 지역으로 충청권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종시 원안사수와 과학비즈니스 벨트 원안사수를 위해 일차적 결속이었던 충청권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을 복원하고 지방분권, 주민자치운동의 전국적 중심으로 선도적인 실천활동이 절실하다"면서 "충청권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동지애와 연대정신으로 전국적으로 모범을 보였고, 정권차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무산 기도에 맞서 승리하였던 자부심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충청권 공대위는 "국회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주민자치와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며, 우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

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협력하겠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내년 총선에서 '지방분권 개헌 및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공약 추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세종시 광역도시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수립되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충청권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면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되어 오지려 역차별을 겪고 있는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지정과 함께 잔여공공기관의 충청권 유치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청권 공대위는 ▶ 충청남의 혁신과제인 충남혁신도시 추가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22만 충남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상파방송 중추가 부재하여 언론과 정보환경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만큼, KBS충남방송중국 설립은 물론이고, 아울러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 관철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의 핵심과제인 대전혁신도시 추가지정과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광주, 울산과 함께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역시도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취약계층의 공공의료안정망 구축을 위해 대전의료원이 건립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의 핵심과제인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나아가 행정수도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에게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 세종시, 추석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차차 단속에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차차 단속을 2일부터 15일까지 유예한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시는 시장 이용객의 주차차 가능 시간을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한다.

다만, 4대 불법 주차차 금지 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와 인도 위 주차, 이중주차 등 주차차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차 단속 유예를 통해 주차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외 지역에서는 강력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추석명절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김태성기자

## 대전경찰청 '수사경찰 비전선포식' 가져

교수, 변호사 등 초청 수사구조개혁·반부패 개혁 등 논의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3일 오후 2시 지방청 김용원실에서 대전청 소속 수사부서 경찰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를 비롯해 대전 시민을 초청해 '수사경찰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비전 선포식은 수사구조개혁을 앞두고 1차적, 본래적 수사체로서의 수사경찰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모색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수사경찰의 모습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사구조개혁 논의가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있지만 입법화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수사경찰의 전문화와 역량 발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지지와 협력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문제 해결 사로서의 태도를 갖고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중부서 황인욱 경사와 김수현 순경이 수사경찰을 대표하여 비전선언문을 낭독했고, 참석한 모든 수사관들이 함께 '책임, 시민보호, 인권, 전문성, 부패결절, 다섯 가지의 수사경찰 비전을 선선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종료되고 수사권 조정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수사경찰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선언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오늘 발표한 비전을 품고 시민들이 바라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정복기자

## 추석 연휴 금융기관 특별방법지도

공주읍 신관지구대, 평온한 명절치안 확보를 위해 나서



공주경찰서(서장 전창훈)는 추석 연휴 9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온한 명절치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편의점 등 특별방법지인 활동에 나선다.

신관지구대는 관내 금융기관, 편의점 등 현금을 취급하는 업소와 주택가를 중심으로 범죄취약 요인 사전 점검, 금융기관 안전수칙 배부 및 홍보와 가시적인 순찰 활동으로 범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소규모 금융시설 등 취약

점포에 대해 자체경비인력배치, CCTV 등 방범시설 및 장비구입, 발생시례 수법에 대한 대처 등을 교육해 방범체계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신관지구대 직원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에 대한 가시적인 예방 활동으로 주민들이 평온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주=정성범기자

## 김경호 태안소방서장, 화재취약대상 안전 점검 실시

효림요양원과 태안공용버스터미널 방문



김경호 태안소방서장은 지난 2일 효림요양원과 태안공용버스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대비 화재취약대상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추석 연휴를 맞

아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을 관서장이 직접 방문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 및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화재취약 요인 제거를 통해 대형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관계자 면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실태 확인 ▲주요 시설물 현장 확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불나면 대피 먼저 안내 ▲화재 초기 대응요령 등 관계자 교육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논의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김경호 서장은 "만사불어튼튼이라는 말이 있듯이 재난도 평소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안=김정환기자

##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 캠페인

아산시, 민·관·경이 함께하는 캠페인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3일,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월랑초등학교 등 7개교 앞에서 '민·관·경이 함께 교통사고 제로(ZERO)화 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아산시 ▲아산경찰서 ▲아산교육지원청 ▲아산시주민자치연합회 외 7개 단체, 200여명이 참석해 학교 주변 교통안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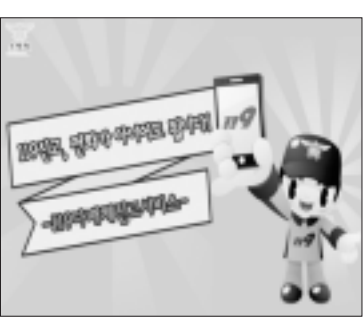
시에서 추진하는 교통사고 제로(ZERO)화 운동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민,관,경이 함께 참여해 교통안전 캠페인은 물론, 찾

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 시설보수 및 노란발자국 설치 등 교통안전에 대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온천초등학교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석한 유병훈 부시장은 "여기 모인 기관단체를 시작으로 교통사고가 없는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캠페인 문구대로 교통사고가 제로가 될 때 까지 모두 힘을 내보자"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금번 캠페인 이후에도 17개 면동에서 별도 일정을 정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 청양소방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청양소방서(서장 류일희)는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서비

스'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 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의 119신고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장애인과 외국인, 음성신고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도 119신고가 가능해졌다"며 "주의할 점은 스마트폰 조작 부주의로 119에 오접속 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청양=정성범기자



#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 세종시교육청, 평준화 고교 학생 배정방안의 분야별 개선 방안

세종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평준화 도입 3년차를 맞이하여 세종시의 변화된 교육환경에 부응하고 학생의 희망을 반영하는 동시에 평준화의 근본 취지인 근거리 통학이 가능한 고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고입전형 방안을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평준화 고교 학생 배정방안의 분야별 개선 방안으로 첫째, 지방 학교 수와 통

학권 내 배정 비율 조정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등학교 선택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기 위해 지방 학교 수를 현행 3지방에서 7지방으로 확대한다.

둘째, 학급 수 및 입학 정원의 편차를 완화해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학생 수에 따른 유·불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편성 학급 규모를 점진적으로 균등화하며, 고등학교 배정 정원 편성 시 추가배정 예상인원을 미리 포함하여 학급수를 결정하였으나, 2020학년

도부터는 본 배정 정원에서 이를 제외한다.

셋째, 학교와 교사의 교육 전문성을 강화한다. 세종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균형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원을 적정 배치하고 지도역량을 강화한다.

넷째, 고입 배정 업무 검증 절차 강화하기 위해 긴급 교육 현안이 발생되면 신속히 정리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교육 수요자의 혼란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

이승표 국장은 "우리교육청은 지난 1월과 같은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2020학년도 고입 학생 배정에 철저를 기할 것임을 시인 어려분께 약속드리며, 앞으로 고입 전형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들어 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태성기자

# '9월 첫날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서천교육지원청, 전 직원 대상... 소통과 공감문화 확산 위해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태모)은 지난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통과 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교육강사 정해숙 강사를 초빙해 '투명한 조직, 세상을 바꾸는 청렴'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교육했다.

정태모 교육장은 "전 직원이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문화가 확산 정착되어 청렴이 서천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지역 교육계를 이끌어 가는 교육장의 취임과 더불어 실시된 청렴교육을 기점으로 서천교육지원청의 향후 청렴 행보가 주목된다.

서천=이정복기자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며 안전을 배워요"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원장 이수철)은 3일 학생안전체험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를 비롯한 각계 인사와 학생,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 기념식, 테이프 커팅식, 안전체험관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Wee센터, 2학기 상담(생명존중) 주간 운영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유미선) Wee센터는 2일부터 27일까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및 자살 등 위기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생명존중) 주기를 운영한다. Wee센터에서는 상담주간 동안 신학기 교육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내 미음 토닥토닥, 학교폭력 및 정서성 형성을 돕기 위한 심리검사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충무교육원 '선물안 주고안 받기' 결의 충무교육원(원장김정식)은 지난 2일, 본원 강당에서 교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물안 주고안 받기 운동' 다짐 결의를 가졌다. 이번 다짐회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실천하고 있는 '선물안 주고안 받기 운동'을 적극 실천 하고자 하는 충무교육원 직원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대전초등학교 배구부, 2019 전국 유소년 클럽 배구대회 우승 대전초등학교(교장전영배) 배구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렸던 2019 전국 유소년 클럽 배구대회 교학년 여자부에서 우승하였다.

# 대전시교육청, 불시 급식 점검 환절기 위생관리 철저

신학기 식중독 사고 예방 위해 초·중·고 20개교 불시 방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설동호는 9월 3일 신학기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감을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이 초·중·고 20개교를 불시에 방문하여 위생·안전 점검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적으로 식중독 사고 환자의 72%가 개학 초기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 증식이 활발해지는 등 위생관리에 있어 취약 시기인 단

름 사전 예고 없는 현장점검을 통해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설동호 교육감은 대전고등학교를 방문해 식재료 보관·관리 및 조리실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하고 식재료 검수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급식 전반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힘쓰는 급식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급식실에서는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해 검수 과정부터 조리가 완료되기까지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학생들에게는 식사 전 손 씻기와 손 소독 교육을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 충남도립대, 15개 시·군과 일자리 그물망 조성 '합심'

대학 시·군 방문회의 완료, 지역내 학생 취업 공감 등 협력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가 도내 15개 시·군과 손잡고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그물망'을 조성한다.

충남도립대학교 일자리센터는 3일 '충남도내 15개 시·군 일자리센터 방문 회의'를 모두 마친 가운데 결과보고를 열고 지역 내 학생들의 취업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군 일자리센터 방문 회의'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극복하고 대학 졸업생·재학생이 충남에 취업해 지역 인재로 뿌

리내릴 수 있도록 대학과 도내 15개 시·군이 연계해 일자리 그물망을 조성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학 일자리센터는 지난 4월 보령시 지역경제과를 시작으로 7월 금산군까지 도내 모든 시·군과 협의를 완료했다.

주요 협의 사항으로는 ▲지역 채용 정보 공유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구인정보 및 취업알선 ▲취업지도를 위한 시·군 상담실 이용 ▲조기취업과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 등이다.

협의 결과 각 시·군은 '지역내 열리

는 각종 일자리·채용 박람회 학생 참여', '기업 채용연계형 시 대학연계' 등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미취업 졸업생 취업지도에 필요한 구인·구직 장소를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취업 지원 정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허재영 총장은 "지난해 졸업생 취업실태 조사를 보면 우리 대학 졸업생의 77%는 충남 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하고 있으며, 10명 중 6명은 지역 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5개 시·군과 손잡고 청년들이 다시 우리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양=정성범기자

# 아산시, 초·중 학부모대상 진로진학전문가 강연회 성료

'초중부터 준비하는 내 아이 진로진학'이라는 주제로 강연



아산시시장 오세현은 3일, 아산시교육문화센터에서 '초중부터 준비하는 내 아이 진로진학'이라는 주제로 대치동 부모교육전문가 이미에 사문코치연구소 대표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시는 더 큰 시정위원회 교육분과의 자녀 진로진학 정보를 위한 입시설명회 제언에 따라 진로진학은 더 이상 가정과 교육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강연회

를 기획했다.

이날 강연은 교육개혁과 창의융합 인재, 임마 주도학습과 자기 주도학습, 학생부 종합전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부모들이 자녀 학습전략과 입시전략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정보로 평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한 학부모는 "평소 입시정책도 어렵고 강남엄마들을 풍자한 스카이크슬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걱정이 많이 했는데, 아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에 깊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진로와 적성을 조기에 찾는 것이며 그것을 돕는 것이 바로 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홍성도서관,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13강좌 개강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홍성도서관(관장 안영숙)은 9월 3일 '그림책활동가 통합과정'을 시작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13강좌를 개강한다.

환경개선 공사로 인해 도서관 내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서인지 수강생 모집의 열기가 뜨거웠던 하반기 평

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강좌는 ▲영유아 대상 6강좌(인형극으로 만나는 영어동화, 책놀이북스타트, 오로라미 슬퍼포먼스, 그림책놀이) ▲학생 대상 3강좌(동화요리남남, 애니메이션으로 배우는 영어, 인형극으로 만나는 영어동화)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직업능력과정 2강좌(그림책활동가통합과정, 동화구연&손유희2,3급통합과정) ▲노인 대상 2강좌(그림책 자서전, 실버여행영어회화)이

김정환기자

**천안교육지원청, 맞춤형 수업코칭 운영**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경신)은 9월부터 11월까지 수업코칭 희망 초·중·고교사를 대상으로 2019 하반기 맞춤형 수업코칭을 운영한다.

이번 수업코칭은 배우고 성장하는 수업혁신 문화 조성으로 학교 현장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맞춤형 수업나눔과 수업성찰을 통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된다.

관내 초등학교 수석교사 11명으로 구성된 수업성장 지원팀은 3인1조를 이뤄 희망교사의 공개수업을 참관한 후 영역별 수업코칭을 실시한다.

천안교육지원청 김기오 초·중·고 교육팀장은 "희망교사들이 공개를 위한 공개가 아닌 학생들의 배움에 초점을 맞춘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평소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동부교육지원청, 고객지향 민원행정 전화친절도 평가**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는 기관 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9월중 실시하며, 10명의 모니터링단이 민원인을 가정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화친절도 평가를 통하여 민원인과 직접 소통하는 수단인 전화응대의 친절 수준을 점검하여 취약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친절환 전화응대 자세를 정착시키고 보다 고객지향적인 교육행정기관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일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날 경우 적극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동부교육지원청 조승식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을 먼저 고려함으로써 꾸준히 발전하는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으뜸 동부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 여성친화 지역 맞춤형 취업지도 훈련과정 개강

## 공주시, 성 평등 관점을 갖춘 직업상담사 양성으로 여성친화도시 기여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2일 공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일환으로 여성친화 지역 맞춤형 취업지도 훈련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공주시지역 여성 20명을 대

상으로 10월 25일까지 36회차, 총 144시간으로 이뤄지며, 직업상담사 전문교육과 함께 여성 친화적 관점을 갖추기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의 소양교육이 함께 진행된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교육생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으며, 정종순 공주시원이 '도시와 삶, 그리고 여성'이라는 주제로 여성으로서 사회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한 마인드 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양병찬 공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은 "공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교육생들이 선두주자가 되어 지역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가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며 "센터에서도 여성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과 취업, 사후관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정성범기자



# 한국동서발전 경영진 현장 안전 경영 활동

## 당진화력본부 추석 명절 대비 특별 안전 점검 실시

한국동서발전(주)당진 화력본부(본부장 박윤옥)는 지난 2일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 및 경영진이 참여한 가운데 '9월 경영전략회의 및 현장 안전 경영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안전 경영활동은 국민 생명·안전 중심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관련 정부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안전을 확립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영진이 직접 청취하기 위한 사업소 팀에서 안전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현장 안전 경영활동에 앞서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청렴 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한 기본 지키기 실천을 당부했다.

현장 점검에 나선 경영진은 중앙 제어실을 방문해 안정적 전력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저탄장, 석탄취급설비, 안전취약지역 등 현장 내 안전 보강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이날 20일까지 예정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7.8~9.20, 총 75일간) 동안 안정적인 발전소 설비운영을 위해 발전기, 터빈 및 보일러 등 주요 설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설비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비상 상황별 대응 행동매뉴얼 등 대비상태를 점검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아산시 건강한인생설계 강좌 호응

아산시보건소(소장 김은테)는 8월 1일, 27일, 31일 3회에 걸쳐 관내 서연이해 아산공장, 코닝정밀소재, 동부익스프레스 서부지점 등 사업장 3개소, 직장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인생설계 강좌'를 개최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대한웰다잉협회회장 최영숙 교수초빙해 강좌를 진행했다.

최영숙 교수는 직장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직장 내 사례들을 언급하며 "건강한 인간관계가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좌에 참석한 한 직장인은 "평소 생각하지 못한 삶의 마지막을 떠올리며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시 보건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한 인생설계 사업을 추진해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중부발전

## 청렴·감사업무 협약체결

한전원자력연료와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일 한전원자력연료 본사에서 청렴·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청렴·감사업무 노하우 공유 및 감사인력을 교류함으로써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감사인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정책 공유 및 컨설팅, 반부패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보 교류, 감사활동 시 전문분야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협업감사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명경 상임감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 감사인들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한전원자력연료는 감사역량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으로서 반부패 및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042)538-3030

# 서산시 올해 하반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진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 신차구입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물량은 45대(1억8천만원)로 신청 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중 견선기계를 조기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및 기관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를 첨부해 서산시청 3층에 위치한 환경생태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며, 그 외 신청자는 제작년월일이 오레된 차량 순으로 선정해 선정 결과를 10월 초 우편과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

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서산시청 환경생태과(660-3060)로 문의하면 된다.

최병렬 환경생태과장은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의 LPG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과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산=김정환기자

# KT&G '릴 베이퍼'전용담배 '시드 아이스 업(SiD ICE UP)' 출시



(SiD TOBAC), 시원한 맛의 '시드 아이스(SiD ICE)', 이국적인 맛의 '시드 퐁드라(SiD TUNDRA)' 총 3가지가 판매돼왔다.

'릴 베이퍼'는 한 개비 진동알림 기능인 '퍼프 시그널'을 적용해 사용자가 흡연량 정보를 알 수 있고, 슬라이드를 내리면 바로 작동되어 첫 모금부터 풍부한 느낌을 구현해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아왔다. 또한 기본 제공되는 마우스 커버를 통해 입술이 닿는 부위의 위생적인 관리도 가능하다.

신제품 출시에 맞춰 KT&G는 판매망을 4일부터 대폭 확대한다. CUGS25, 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전국 주요 편의점 39,000개소에서 '릴 베이퍼'와 '시드'를 만나볼 수 있다. 기존에는 전국 주요 도시 18,300개 편의점에서 제품을 판매해 왔다.

임왕식 KT&G NGP사업단장은 "'시드 아이스 업'의 출시로 '릴 베이퍼'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양군 청정산채 융복합 실무추진단 협의회 열려



청양군(군수 김문곤)은 지난 2일 상황실에서 청양 청정산채 융복합 실무추진단 협의회를 위한 실무추진단 협의회를 열고, 정부 공모사업에 비선정에 따른 현안논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사리, 잔대, 도라지, 더덕 등 산야초 재배농가와 가공분야, 마케팅 분야, 산림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연중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확대를 생산농가에 당부하고 마을단위 사회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군은 산채산업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 및 상품성 강화, 지역관광제원과 연계한 향토음식 개발 등 청정 이미지에 걸맞은 대표 특산물을 육성할 계획이다.

청양=정성범기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경과 시 최고 30만원 과태료)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지정정비업체(전국 어디서나 검사 가능)
- 지참물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 가능), 수수료

**★ 자동차등록증의 정기검사기간을 꼭 확인해주세요. ★**

자동차 정기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입니다. 본 안내문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검사만료 1개월 전에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며, 검사지역 과태료 부과는 안내문 수령여부와 무관합니다. 수시로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041-630-6166)

검사기간 연장 및 검사소 안내 (http://asas.go.kr → 민원 → 자동차관리안내)

검사기간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http://www.kotaa.or.kr → 고객센터 → sme신청)

# 스마트폰 QR코드로 자동차 정기검사확인 가능

## 아산시, 편의성 높이고 안내엽서 내용·디자인 개선해 가독성 높여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시민들의 자동차 정기검사의 무일정 준수와 검사 이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스마트폰 QR코드를 선보였다.

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만료 한 달 전에 발송하는 안내엽서에 스마트폰 QR코드를 삽입해 정기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한번에 찾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안내엽서의 내용과 디자인을 대폭 개선해 가독성을 높였다.

안내엽서 스마트폰 QR코드는 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 모바일 안내신청 서비스와 아산시 홈페이지 자동차관리 안내 등 2개 사이트로 각각 연결돼 가장 가까운 관내 검사 정비업소의 위치와 전화 번호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경노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정기검

사는 나와 모든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차량 소유주의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수시로 자동차정기 검사기간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의 오른쪽 하단 '검사유효기간표'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운전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전·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산=리량주기자



# 롯데백화점 대전점, '세라젬 마스터 V3' 체험해 보세요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손은경)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젬 팝업스토어를 연 가운데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척추 온열의료기기 '세라젬 마스터 V3'를 체험하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라젬 마스터 V3는 180도 누운 자세로 사용하며, 사용자의 척추 길이와 골곡도에 맞춰 최대 65℃의 집중 온열 자극으로 마사지 효과를 제공한다. 특히, 근육통과 만성피로 완화에 도움을 준다.



동정

전통시장 장보기



오세현 아산시장 =4일 오전 11시 30분 온양전통시장에서 열리는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에 참석.

300인 토론회



김홍장 당진시장 =4일 오전 9시 당진 시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남이흥 장군 체험공간 조성 용역 보고회를 주재, 오후 2시 신평 문화스포츠크터에서 열리는 신평·오봉체 문화공원 만들기 300인 토론회에 참석.

본회의



김기재 당진시의장 =4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65회 당진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해양경찰청 유치 나서



가세로 태안군수 =4일 오후 2시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에 적극 나선다.

추진위원회



김돈곤 청양군수 =4일 오후 2시 청양읍사무소에서 열리는 푸드플랜 민관거버넌스 추진위원회에 참석.

청양의료-건양대병원

고위험 임신부 진료협약

청양군보건의료원(원장 김상경)은 지난 2일 보건의료원 대회의실에서 건양대학교병원(원장 최원준)과 저출산 위기극복과 고위험 임신부의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맺어 임신 합병증 등의 고위험 임신부 대상으로 효율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해 환자 의뢰, 후송업무 등 양질의 진료와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건양대병원과 진료협약 체결로 저출산 위기 극복과 구내 임신부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양의료원은 고위험 임신부의료비와 관련 19종의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90% 지원하고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할인 혜택이 계속되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6 태동빌딩 7층

# 충남교직원 휴양시설 최적지 적극 강조

## 지난 2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태안 '고남초 영향분교' 방문



충남교직원 휴양시설 건립사업 유치에 적극 나선 태안군에 충남도 교육위원회 대상지 현장방문이 실시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 가세로 군수, 황인수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군·도의회 의원, 도교육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충남교직원 휴양시설 대상지인 '고남초 영향분교'를 찾아 부지견학 및 현황보고,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가졌다. 가군수는 이날 도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현장방문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태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역사문화·생태·농어촌체험 및 바다여행, 축제 등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가족형 휴양프로그램이 풍부해 '배움과 휴식의 조화'가 가능한 휴양시설 건립의 최적지"라며, "충남교직원 휴양시설 유치를 위해 군은 진입로 확포장 연결, 인공토지 매입 지원, 상수도 급수공사 지원, 들레길 및 산책로 조성, 휴양시설 건립에 따른 각종 인·허가 민원 원스톱처리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안군은 고남면 고남리 96-4(총2필지) '고남초 영향분교' 부지 1만 2,912㎡를 후보지로 정해 충남교직원 휴양시설 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21년 영목항-보령 간 연륙교 및 해저터널 개통, 국도 77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 등을 통한 접근성 향상, 전망타워·특산물판매장·방문자센터 등이 들어서는 '영목항 니들목 해양관광거점 조성사업', 민속어촌스테이·전통문화마당·전통어구체험장 등이 건립되는 '어촌뉴딜 300사업(인근 가경주항)' 등이 추진되고 있어 '충남교직원 휴양시설'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충남교직원 휴양시설'은 2023년 개원예정인 ▲소규모 행사·워크숍·회의 등이 가능한 교육시설 ▲체육단련·치유·힐링이 가능한 체육관, 정원 등 복지시설 ▲300명 수용 가능한 객실 등을 포함한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태안=김정환기자

# 당진지역 이·통장 일본 경제보복 규탄

## 제15회 한미음 체육대회서 결의문 발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으로 일본 제품 불매와 여행 자제 운동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지역 이·통장들이 3일 일본의 부당한 보복 행위에 대한 규탄문을 발표했다.

3일 당진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지역 이·통장 등 모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사건국 이통장연합회 충청남도지부 당진지회(지회장 성낙근) 주관)로 제15회 당진 이·통장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김한조 석문면협의회장은 200여 명의 이·통장들을 대표해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수출규제에 따른 무역전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더불어 ▲아베 정

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 즉각 철회 ▲G20 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상항 이행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에 대한 진실 어린 사죄를 촉구하고 이·통장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3일 열린 제15회 한미음 체육대회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한 결의문 발표 외에도 체육대회와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 행사의 일선에서 시민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이·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통장 간 우의를 다지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개회식에서는 시장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합덕읍 하곡리 문화양이장이 당진시장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48명의 이·통장들이 유공자 표창을 받기도 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아산시 추석맞이 도심지 인도·도로변 제초작업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주요 도심지 인도 및 도로변 제초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제초작업은 ▲은고사거리~송악사거리 ▲관광호텔사거리~시민로사거리 ▲시민로사거리~아고오거리~온양온천역 ▲실목동사거리~박골관사거리 ▲충무병원사거리~풍기동사거리 ▲터미널 주변 교동성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시는 도심지 따죽지와 가로수 주변 및 주요도로변 제초작업을 병행 실시 중으로 다가오는 추석맞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병록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제초작업을 통해 추석명절 아산시를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불법광고물정비 등 도시환경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정비를 통해 깨끗한 아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캠페인 실시

## 청양군, 홍보물 배부 안전한 등하교·학교 활동도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3일 정산면 정산초등학교 앞에서 개학기를 맞아 '함께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 군, 청양경찰서, 청양교육지원청, 정산초등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민관 단체 참여자들은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학교 활동을 도왔다.

전달된 홍보물은 교통안전, 유해

환경, 식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학교주변 4대 주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과 안전신문고로 통한 안전위해 신고 방법 등을 담았다.

김돈곤 군수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며 "군에서도 학교주변의 안전관리 점검 및 제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 당진시 '인문강좌' 진행

## 근대당진지역의 계몽과 저항의 이용후생

당진시와 한서대학교 인문도시 사업단은 교육부와 한국 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이달 20일부터 '근대당진, 계몽과 저항의 이용후생' 인문 강좌를 진행한다.

'전통시대 당진의 이용후생'을 주제로 지난해 진행된 1차년도 강좌에 이은 이번 2년차 인문학 강좌는 전문가를 초청해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좌 주제는 ▲연암 박지원의 문학과 이용후생, 그리고 당진(한양대 박수필 교수) ▲당진의 국제교류사와 해양문화(동국대 윤명철 교수) ▲한국 천주교와 김대건 신부, 당진 합덕(충남대 김수태 교수) ▲당진의 근대 일 면모, 박시운의 '면 불일기'와 면천(청운대 김경수 교수) ▲당진의 문화재와 가치 보존 전략(안양대 류호철 교수) ▲당진 동학과 승전포 전투(당진문화역사연구소 김학로 소장) ▲기지사족다리기 박물관 현장 답사(한서대 안덕임 교수) ▲3.1운동과 당진의 대호지 4.4 운동(호서대 김남석 교수) ▲심훈과 당진의 이용후생 정신(한서대 유진월 교수) ▲인문도시 당진 문화유산의 정체성과 이용후생(당진시청 남광현 문화재팀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강좌는 전체 무료로 진행되며 9월 20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0주간 이어진다.

수강생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및 문의는 한서대 인문도시 사업단(041-660-1268)으로 하면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 '심뇌혈관질환' 환자 관리 앞장

## 태안군, 레드서클 존 운영... 측정·건강 상담 실시

태안군이 군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캠페인에 나선다.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월 첫 주)'을 맞아 9월 한 달 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군은 군민들이 자신의 혈관건강 상태를 알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레드서클 존(건강상담부스)을 운영하고 혈당, 혈압,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측정하고 건강 상담을 실시한다.

세부적으로는 ▲3일 태안군문화예술회관 ▲6일 보건의료원 ▲11일 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 회의실 ▲17일 소원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예방관리 교육 및 캠페인이 실시되며, 다채로운 체험 부스를 마련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그동안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운영을 비롯해 캠페인·교육·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연과 함께 술을 줄이고, 적절한 운동을 비롯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며, 정기적으로 혈압·당뇨·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은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

태안=김정환기자



우리/동네

# 수소연료전기차 구매지원 받으세요

## 논산시, 미세먼지·대기오염물질 저감 위해 수소연료전기차 총 15대 보급 예정



박정현 부여군수, 구룡면 임산물유통센터 등 민생현장 방문  
박정현 부여군수의 읍면별 민생현장 방문이 막바지로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일 박군수는 구룡면 논티2리 마을회관과 임산물유통센터를 찾아 마을주민·임산물 유통센터 관계자들과 별도의 격식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산시시장 황명선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수소연료전기차 총 15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소연료전기차 보급대수는 총 15대로 보조금액은 1대당 3,2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수소연료전기차 보급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

에 한해서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2019. 1. 1.이전부터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시민과 논산시에 위치한 법인으로, 한세대(법인) 당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수소연료전기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한 후

계약서를 첨부해 논산시청 환경과(041-746-5515)로 방문접수하며, 선착순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단, 보조금을 지급 받을 경우 논산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당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현재 논산시청 홈페이지(www.nonsan.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논산=김태선거자

**통정**  
소방기술경연

노박래 서천군수= 4일 오전 10시 30분 서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서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대회

에 참석

**역량강화 교육**

박정현 부여군수= 4일 오전 9시 30분 부여 초촌 추양리 체험관에서 열리는 초촌 지역리더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

## 계룡시, '청소년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UCC 공모

### 청소년 스스로 안전한 환경 대한 고민·이야기 전하는 계기 마련

계룡시는 '청소년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가 주관하며, 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의 경각심을 깨닫고, 청소년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내용은 흡연, 음주, 자살, 자해, 학교폭력, 청소년 유해환경 등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나 청소년 안전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 개선을 기여할 수 있는 주제면 된다.

공모대상은 계룡시에 거주하는 청소년(9세~24세)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참여 희망자는 오는 9월 30일(월)까지 시청 및 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작품은 3~5분의 AVI, WMV, MP4 등 동영상 파일형태인 순수창작물로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제출된 영상 작품의 모든 권한은 센터에 귀속된다.  
센터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 5편을 선정하고, 최우수작 1편

40만원, 우수작 1편 30만원, 장려작 3편 각 10만원 등 총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정 작품을 오는 10월 18일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다양한 행사 및 활동에서 UCC를 상영함으로써 청소년안전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이 스스로의 안전한 성장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UCC를 만들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한 층 더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라며 "공모전에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전 관련 기타문의사항은 계



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42-551-1318)로 연락하면 된다.



## 제69주년 반공 오염사 추모제 열려

### 서천군, 지난 2일 반공 오염사묘역서 추모 행사거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는 지난 2일 마서면 송석리에 위치한 반공 오염사 묘역에서 제69주년 반공 오염사 추모제를 가졌다.  
한국자유총연맹 서천군지회(회장 김종근)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추모제는 자유총연맹 회원 및 유가족, 국가공무원, 각급 기관단체장, 학생,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공 오염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 의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육군 제8361부대 1대대의 조종 발사, 현화 및 분향, 추도사, 추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오염사 분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계승해야 할 위대한 정신적 유산이다"며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서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공 오염사는 한국전쟁 당시 장항농업중학교 5학년 생이었던 양태순, 임상덕, 김달식, 최승상, 신윤식 등 5명으로 서천지역을 점령한 북한군에 대항해 구국봉지를 결성하고 적의 동향을 이군에 알리다 체포돼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 복지는 가득! 나눔은 함께! 행복한 동고동락 논산

논산시가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논산시시장 황명선은 오는 7일 오전 9시 시민공원에서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제5회 논산시 복지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는 가득! 나눔은 함께! 행복한 논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복지박람회는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기관과 단체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복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복지시설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한다.  
어울림마당, 전시마당, 참여마당, 홍보·체험마당 등 4개 마당으로 펼쳐지는 이번 박람회는 논산시 파랑새합창단과 어린이집 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사회복지유공자 시상 및 '사람의 심색 가래떡 나누기', 사물놀이 등 각종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져 시민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40여개의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인형극장 ▲복지퀴즈대회 ▲장애인 작품 전시 ▲풍선아트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복지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사람사는 따뜻한 행복공동체 논산을 위해 앞으로도 사람중심의 시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누구나 차별없이 동고동락하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김태선거자



서천=김태선거자

## 부여군충남국악단 제56회 정기공연



부여군충남국악단(단장 박정현)은 제56회 정기공연 '서동 바람일다'를 오는 9월 10일 서울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퍼포먼스 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정기공연의 주요 즐거움을 살펴보면, 주인공 서동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비바람과 천둥을 뚫고 어머니와 살던 산 속의 작은 초가집으로 들어가 백제의 우수한 문화를 서울 사신에게 전해주려는 생각에 빠져있다.  
서동이 백제금동대향로의 오악사가 연주하는 음악에 맞춰 백제 토속민요 산유화가와 서동요를 부르며 백제의 우수한 문화를 관객들에게 재미있게 풀어주는 내용이 공연으로 진행된다.  
공연은 전 좌석 무료이며 티켓 예매는 부여군충남국악단(041-832-5765)과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02-2289-5401)에서 예매할 수 있다.  
공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충남국악단(041-830-2926)로 문의하면 된다.  
부여=김승구기자

## 부여군 평생학습관 제3기 평생교육 정규강좌 수강생 모집

### 총 49개 과목 수강인원 1014명... 오는 8일까지 온라인 접수



부여군군수 박정현(은)에서 운영하는 부여군 평생학습관이 올해 제3기 평생교육 정규강좌 운영을 위한 수강생을 모집한다.

제3기 평생교육 정규강좌 수강인원은 4개 과정 49개 과목 1,014명으로, 오는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다.

모집예정 강좌는 <심비인지 놀이지도사>, <미술심리 상담사> 등 취·창업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능력 향상과정' 9개, <한국무용>, <전통주 만들기> 등 취미와 여가를 위한 '생활문화과정' 19개, <음력 풍수지리 형세론>, <생활영어> 등 인문학적 소양과 자기능력 강화를 위한 '경쟁력 업그레이드과정' 18개,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하기>, <어르신 ABC 영어교실> 등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과 여가를 위한 '실버대상 프로그램'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군은 부여군민을 대상으로 수강생 모집을 진행해 오는 9월 16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 주1회 또는 2회 과정으로 12~15주간 평생학습강의를 운영한다.  
특히 제3기 평생교육 정규강좌

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실시한 부여군 평생학습 요구 및 참여실태 조사결과를 통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위라벨(일과 삶의 균형)' 시대, 일하는 군민의 학습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저녁 프로그램을 강화하였고, 기존 운영 프로그램 중 <커피바리스타>, <국산도>, <칼링요가>, <생활영어> 등 수강자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은 증설하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학습수요를 반영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기 평생교육 정규강좌 신청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평생학습관(041-830-6850-4)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서천 가족의 행복한 스포츠 관람' 행사 진행

서천군군수 노박래(은)는 서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재현)와 함께 지난 31일 서천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녀 30가족 104명이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 야구장에서 경기 관람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토요일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공동

의 관심사를 만들어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진행했다.  
참여자 김연성 씨는 "아이들이 야구에 딱히 관심 없어 보여 야구장에 와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막상 와보니 아이들이 응원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 이현희 씨는 "집에서 TV로만 보던 프로야구 경

기를 직접 관람해 현실감이 넘쳐 좋았다"며 "평소 일이 바빠 가족들과 얘기를 많이 못 나눴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사업 참여 후기를 전했다.  
김재현 센터장은 "가족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만큼 서천군과 지원센터가 합심해 가족 내 돌봄역량 강화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요일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사업은 서천군이 주최하고 서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해 오는 11월까지 서천군에 거주하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거나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서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41-953-1911)로 연락하면 된다.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통정

제45차 정례브리핑 실시



김정섭 공주시장은 4일 오전 10시 시청 3층 브리핑실에서 제45차 정례브리핑을 실시.

시민과 청소하는 날



김동일 보령시장은 4일 오전 7시 시청 3층에서 열리는 시민과 청소하는 날, 오전 10시 웨스트피아에서 열리는 임업과 양봉산업 공동발전 방안 토론회, 오후 4시 성주면사무소에서 열리는 3분기 찾아가는 읍면동장 토론회 참석.

서산태안지부 사랑의 쌀 기탁식



맹정호 서산시장은 4일 오전 11시 서산시 그라운드골프장에서 열리는 충청남도 시군초청 그라운드골프 대회에 참석, 오후 4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한국양곡가공협회 서산태안지부 사랑의 쌀 기탁식에 참석.

지역경제 특화보증 지원 협약식



문정우 금산군수는 4일 오전 10시 다락원서 열리는 지역경제 특화보증 지원 협약식에 참석.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

보령시 사회복지협회는 3일 오전 보령종합체육관에서 '행복이 흐르는 보령'을 주제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보령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홍집)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민·관 지역사회복지기관과 단체,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정보를 공유하여 복지 제고도 및 행복지수가 향상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축하공연과 유공자 표창 등 기념식, 기획공연 및 트롯가요제 등 복지마당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서는 공공 및 민간 복지단체 29개 기관의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명전종합사회복지관 윤은미 씨 등 12명과 보령시자원봉사센터가 보령시장상을 수상했다.

체험행사는 복지박람회로 진행됐으며 ▲보건소는 우울증 선별검사 및 족적 사진 ▲보령시자원봉사센터는 손마사지 및 베일아트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는 일자리 상담 ▲사대대한노인회복지지회는 국화 등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 등으로 다채로운 체험 기회 제공과 유익한 정보도 제공했다.

김동일 시장은 "우리 보령은 남녀노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 받는 포용적 복지 실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북돋아주는 격려와 힐링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 기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30% 증액

보령시, 이달 22일까지 사업 공모...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도모

보령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올해 20억 원 보다 30% 증가한 26억 원을 편성해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보령시 기획감사실 예산팀(☎930-3134, fax 930-3109)으로 하면 되고, 시 정책 사업은 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안방과 방문, 메일(jyeee555@koreakit)로 하면 된다.

시는 접수 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읍면동 위원회의 1차 심의와 시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각 사업의 해당부서로 통보해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효

바른 이해와 읍면동 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웨스트피아 동백홀에서 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 개요, 위원의 역할 이해 및 제안사업 구상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최광희 기획감사실장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으로 2018년 16억 원에서 내년에는 26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지역 특성을 잘 살리면서 지속가

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주민참여예산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 기자

생활속 물 절약 운동 전개

서산시(시장 맹정호)와 한국수자원공사 서산권지사(지사장 정지관)가 지속되는 강우 부족으로 충남 8개 시·군의 생활용수로 공급되는 보령댐이 낮은 저수율로 경제단체에 진입함에 따라 대대적인 물 절약 운동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기준 보령댐 저수율은 27.2%로 이는 예년의 53% 수준이며, 현재 경제단체에 진입한 상태이다.

이에 서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서산권지사는 안정적인 용수량 확보와 물 부족 대응을 위해 가뭄대응 물 절약 홍보 전단지 3만부를 제작해 서산시 관내 전체 지방상수도 수용가에게 배포하고 현수막·옥외전광판을 활용하는 등 물 절약 운동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물 사랑 실천 전문강사 10명을 공개모집해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물 절약의 필요성 및 물 절약 방법을 교육하는 '물 사랑 실천교실'도 운영 중이다.

안현기 수도과장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수도 누수 탐사와 대체용수개발 관정 확보 등 긴급식수원을 관리·개발 중에 있지만 가뭄 현상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민들께서도 평소 적극적인 물 절약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생활속 물 절약 방법으로는 ▲양치질 시 물컵 사용 ▲빨래 모아서 하기 ▲목욕보다는 샤워하기 ▲절수형 변기 사용 및 변기에 벽돌 넣기 등이 있다.

서산=김정민기자

우리/동네

공주시 'EM 흙공 던지기' 수질개선 효과 탁월



공주시 의당면(면장 김계영)은 지난 2일 관내 하천에서 EM흙공 1천여 개 던지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당면 유계리 주민과 자원봉사자, 의당면사무소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계천과 청룡천에서 1천여 개의 EM흙공을 투척했다.

이날 사용한 EM흙공은 지난 달 미리 만들어 보름동안 발효시킨 것으로 수심 1m의 유역에 미생물이 들어있는 EM흙소 발효액과 질 좋은 황토로 만들어졌다.

EM흙공을 하천 바닥에 던지면 하천의 수질 개선과 토양복원, 악취제거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사를 주관한 오명숙 공주시자원봉사센터 의당거점센터장은 "소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EM흙공 던지기 이외에도 환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계영 의당면장은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준 자원봉사자들 및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여러 단체와 함께 민·관 협치로 의당면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금산군, ICT활용 친환경 약용 쌈 채소 첫 출하

기존 하우스 활용 '적근대' 양액재배



ICT(정보통신 자동화 시스템) 기반을 통해 생산된 친환경 약용 쌈 채소 '적근대'가 첫 출하했다.

금산군은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쌈채소 생산체계 자동화에 나서 하우스 1,320㎡에 육묘용 베드, 양액 시스템 시설에 ICT기반 스마트 팜 농법 시스템을 구축했다.

쌈채의 경우 휴식기간 7월~8월

재배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존 하우스를 활용하면 고품질의 쌈채소를 전천후 생산할 수 있다.

양액 재배기술로 노동력을 줄이고, 재배기간 단축에 따른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어 유리하다.

약용 쌈 채소인 적근대는 혈액순환이나 지방제거 특히 갑슌이 풍부

해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좋고 다른 종류의 쌈 채소, 깻잎과도 잘 어울리는 장점을 갖고 있다.

생산된 적근대는 만인산 농협 APC산지 유통 센터와 계약 체결로 1일 10박스(10kg)전량을 안정된 가격으로 납품된다.

생산농민 권용안(45세)씨는 "베드 시설에 ICT활용한 자동화 조건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하우스에 가지 않고도 온도, 수분관리만 만 안 나라 하우스 개폐 등이 가능하다"며 "원격으로 조절하니 작업환경이 편리해져 좋아져 부인이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ICT기반 스마트 팜 농업은 현재 금산에서는 딸기, 깻잎, 인삼, 약용쌈채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기후변화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문제해결과 농작업 환경 개선이 농가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주연기기자

서산시 추석연휴 쓰레기 특별 관리 대책 추진

취약지역에 청소기동반 투입 등 청소민원 제로화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시민이 정결한 환경 속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2일까지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연휴 기간 쓰레기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처리 상황반을 편성·운영하고, 생활폐기물(일반·음식물) 수거체제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평소와 같이 정상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11일까지 기업, 단체, 기관 등과 연계해 국토대정소를 실시하고, 내 집앞 치우기 홍보, 종량제 봉투 사용 생활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증가를 대비한 감량화 유도 및 적정처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주요 도로변 정체구간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터미널, 동부시장, 호수

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정결지킴이를 배치하고 주력가뭇골목, 도로변 등 취약지역에 청소기동반을 투입하는 등 청소민원 제로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상철 자원순환과장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맞이하는 시민 모두 깨끗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관리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배출 시간 준수 등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산=김정민기자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사랑방' 리모델링 오픈

공주시시장 김정섭은 지난 2일 의당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내 사랑방(힐머니방)을 새로 리모델링해 오픈했다.

시는 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입해 사랑방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인마 의자 2대와 소파, 연엽매트 2대를 구입 비치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로써 종합사회복지관 내에는 남성과 여성 전용 사랑방이 분리된 공간으로 조성돼 보다 효율적인 공간으

로 운영될 전망이다.

사랑방은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며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사랑방 이용을 하고 있다.

공주시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임동진 담당은 "매년 복지관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 앞으로도 시설개선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실시

금산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수칙 등 다양한 건강정보와 책자 제공

금산군보건소(소장 이화영)는 9월 첫째 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금산장남(9월22) 정터인 수심센터 및 인삼약령시장을 찾아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했다.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올해의 슬로건으로 로스스로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금산군보건소 1층 다모아센터 내에서 레드서클 존을 상시

운영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즐기고, 적절한 운동과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며, 혈압·당뇨·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수칙 등 다양한 건강정보와 책자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9월 4일에는금산군 다락원 대공연장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문화제 행사장에서 레드서클 등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생명사랑 문화제는 작은 관심의 두드림 커지는 생

명사랑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긍정심리 생명존중 강연과 '행복하세요?' 문화공연으로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으로 이뤄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심근경색 조기증상으로 가슴통증, 식은땀, 구토 및 메스꺼움,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 심뇌혈관질환 응급 증상과 인면마비(한쪽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러움, 심한 두통과 같은 뇌졸중 조기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19에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산=김정민기자



# 행복청, 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투어 실시

##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방문 등을 시작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 수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은 박물관단지 건립 사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다방면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규

프로그램인 '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투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투어'는 타지역의 박물관을 공무원과 국민이 함께 직접 방문하고, 박물관단지 사업과 박물관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엔 새롭게 시도되는 소통 방식이다. 이번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담당공무원과 국민 간의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동시에 박물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양질의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박물관을 한 곳에 모아 건립하는 박물관단지는 행복도시세종을 행정과 문화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행복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박물관단지는 '17년 8월 국제공모를 통해 5개 박물관 및 2개 통합시설을 건립하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확정하였고, 현재는 어린이박물관과 단지 전체의 통합시설 설계가 진행 중이며, 어린이박물관은 2020년 착공하여 2023년 중 개관할 예정이다. 이번 투어는 '행복도시 박물관단지 건립 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는 9월 3일(화)부터 22일(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최대 15명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국민생각함(<http://idea.peoplego.kr/naac/>)의 '투어참가 모집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댓글로 신청서를 첨부하면 된다.

투어는 9월 20일(목)에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할 예정으로 점심식사 및 세종-박물관까지 왕복 이동차량은 행복청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생각함 게시판' 또는 행복청 문화박물관센터(044-200-3341, 3342)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백 문화박물관센터장은 "이번 박물관투어를 통해 공무원과 국민의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단지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실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박물관단지 건립을 위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예산군, 2019 의좋은 형제 여름축제 성료** 예산군대충면 일원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2019 의좋은 형제 여름축제'가 전국 단위 방문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이번 의좋은형제 축제는 국경교과서에 등재돼 잘 알려진 이성만·이순 형제의 벗단 나누기 일화를 바탕으로 '우애'와 '효'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호서대, 취업 준비도 가상체험으로** 호서대학교(총장이철성)가 학생들의 취업준비를 돕기 위해 9월부터 가상체험 AVR 면접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어 지역 취업준비생들에게 인기다. 대학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AVR 면접실은 아산, 천안, 당진 3개 캠퍼스 대학일자리센터에 설치되었고,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년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충남공동모금회,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1억 9800만원 전달**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관형)는 3일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19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6개소에 1억9800만원의 배분금을 전달하고 사업수행기관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남부호 부교육감, 대전도마초·대전느리울초 통학로 개선 공사 현장 점검**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학기 개학을 맞아 학교주변 통학로 협소로 인해 학생·학부모 및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통학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도마초 및 대전느리울초 공사현장을 점검하였다.

## 당진시, 5일부터 읍면 순회 무료 암 검진 실시

1차 건강검진 병행, 23일까지 진행

당진시 보건소는 암 조기 발견을 통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자 1차 건강검진과 국가암 검진을 이달 5일부터 읍면별로 순회하며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검진은 1차 검진과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에 대해 검진하며, 대상자는 여성 만20세 이상 흡수 해 출생자, 남성 만

40세 이상 흡수 해 출생자가 해당된다. 특히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될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최대 220만 원,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진단 시에는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은 검사 전날 저녁 식사 후 밤 10시 이후에는 금식하고 검진 당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검진 결과는 15일 이내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번 무료 이동검진에서 국가 암 검진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당진지역 검진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진 일정은 ▲5일 합덕 보건지소 ▲6일 송악 보건지소 ▲9일 고대 보건지소 ▲10일 석문 보건지소 ▲11일 대호지 보건지소 ▲16일 정미 보건지소 ▲17일 면천 보건지소 ▲18일 순성 보건지소 ▲19일 우강 보건지소 ▲20일 신평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23일 송산 보건지소이며, 검진시간은 모두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까지로 동일하다.

당진=최근수기자

## 아산시, 천안시와 상생협력 오페라 공연 개최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오는 9월 26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맞아 아산시민과 천안시민의 문화교류를 위해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아산시립합창단과 천안오페라단의 합작 공연으로 두 예술단이 힘을 합쳐 공연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두 지역 간 문화예술 부문 협력 강화를 위해 기획했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이탈리아 유명 작곡가인 마스카니(P.Mascagni)의 작품으로 시골마을에서 벌어지는 남녀 간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하늘의 여왕이여 기뻐하고서' 등 서정적인 곡이 매우 인상적이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1회차 공연은 9월 21일 오후 5시 천안 예술의전당, 2회차 공연은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인 9월 26일 오후 7시 30분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야외무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일반 대중이 갖는 클래식에 대한 어려움을 깨뜨리고 극적인 스토리와 비교적 짧은 공연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쉽게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민관이 협력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자 두 지역 간 문화교류의 초석을 다지는 행사라며, "향후 더 다양한 작품들로 시민들에게 알찬 볼거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헝가리 미슈폴츠 시의 아산시립합창단 초청공연으로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를 성황리에 마친 것에 이은 앙코르 공연으로 우수한 문화예술작품을 아산시와 천안시에서 선보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리량주기자

## 대전시교육청, 올해 2학기부터 고3 무상교육 첫 실시

2학기 고3 대상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 학생 1인당 85만원 혜택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들 1만 5천여명은 9월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되어 1인당 85만원(일반고 기준)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

는 자율형 사립고대성과, 대신고, 사립 목척고(대전에 속고), 새소리음악고를 제외한다. 아울러, ▲2020학년도 고2, 고3 ▲2021학년도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1인당 연간 지원액은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고 기준으로 170만원 내외이다. 올해 무상교육 예산 91억원은 전액 대전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부

(47.5%), 교육청(47.5%), 지자체(5%)가 분담하게 되며 현재 관련 법령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전교육청 오광열 재정과장은 "그동안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게 지원하였던 현행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는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었으나, 고교무상교육 추진을 통해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게 되어 교육비 부담 경감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보령시보건소, 오는 6일까지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 모집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개선과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

보령시보건소는 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를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오는 6일까지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매월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패키지를 제공해 영양개선과 식생활 관리능력을 키우고자 실시

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보령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 및 60개월 미만 영유아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의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며, 임산부의 경우 영양 위험요인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의료급여 수급자 또

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등을 지참해 보령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회 영양 교육 및 상담 ▲유유, 분유, 주스, 감자, 당근 등 개인별 맞춤형 보충식품 지원 ▲영양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식품 보관법 및 조리법 안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930-6864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김정미기자

## '건강도우미 부스' 청양고추구기자축제 성공 큰 역할

19만5000여명이 다녀가... 성공적 막내년 2019청양고추구기자축제



지난 1일 관광객 19만5000여명이 다녀간 가운데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2019청양고추구기자축제의 숨은 주역으로 '건강도우미 부스'가 꼽혔다. 청양군보건의료원(원장 김상경)과(사정양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기섭)가 주축이 되어 8월 30일부터 3일간 운영한 건강부스는 다양한 건강도우미 역할로 관광객과 군

민들의 반가움을 샀다. 청양의료원은 이번 축제기간 건강홍보관을 열고 자기 혈관 알기, 금연 상담, 음주 가산체현, 올바른 칫솔질 방법 등을 소개하며 일상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청양군자원봉사센터는 수지이힐 전문봉사단을 투입해 관광객들의 건강생활을 도왔다. 3일 동안 '귀족사냥' (회장 김애란)회원들은 이빨기식입방뿔 등으로 참여자들의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국제로타리3620지구 레드로타리클럽(회장 신주희) 회원들과 개인봉사자들은 전래놀이-한지이길 만들기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또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해 청양군여성자원봉사회, 대한적십자사청양지구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청양군협의회, 청양군노인

복지관홍보서포터즈단, 청양읍명예환경감시단 회원들이 환경정화에 적극 동참했으며, 개인적으로 함께한 오보섭(성심건축)봉사자의 활동도 돋보였다. 축제와 병행해 개최된 스포츠대회를 뒷받침한 단체의 손길도 빛났다. 이번 축제는 전국게이트볼대회, 전국시니어배구대회, 축구대회, 전국풍호인테니스대회, 충남그라운드골프대회, 충남파크골프대회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청양지구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청양군협의회, 청양경찰서외경어머니회, 청양군여성자원봉사회, 개인봉사자와 청소년 봉사자 등은 출전한 선수와 임원들이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식음료 봉사와 안내로 최선을 다했다. 이밖에 교통통제를 위해 애쓴 청양군자를 방범대연합대, (사정양군모범운전자회, (사정양군해병대전우회의 역할도 컸다. 청양=정성범기자

김정환기자





**한밭대, 금융권 취약생을 위한 금반지 취업 연합캠프 개최** 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금산 현대대상화재연수원에서 '금반지 취업 연합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2019년 하반기 성과보고회** 충남경찰청은 3일 충남경찰청 7층 대회의실에서 충남경찰청장(차인갑 이명교), 각 기능 과장 경찰서장, 계·팀장급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두산인프라코어(주), 보령시에 추석 명절 물품 및 상생기금 전달** 보령시는 3일 오전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박성근 두산인프라코어(주) 전무, 이관형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명절 이웃사랑을 위한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자사의 시험장이 들어설 성주면 개화3리 마을과의 상생을 위한 1억 원의 지정 기탁과 어려운 이웃에게 제 공될 1000만 원 상의 김 선물세트 전달했다.



**서산시 인지면 지역협의체, 이·미용 봉사 펼치** 서산시 인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주매자, 한명동)는 지난 2일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내 미용실 두 곳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고령 어르신 31명을 대상으로 파마, 염색, 커트 등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2019년 계룡산국립공원 시민대학 10기 수료식 가져**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조경욱)는 지난달 30일 2019년 계룡산국립공원 시민대학 10기 수료식을 통해 수료생 22명을 배출했다.



**유등노인복지관 '사랑의 의료봉사' 릴레이 지원** 유등노인복지관은 3일 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대전봉사체결교실 후원으로 대전 총창외과김찬기 원장의 재능기부로 35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링겔을 투여하는 '사랑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소이현·인교진 부부, 3일 충남도청서 홍보대사 위촉식**

**제65회 백제문화제 홍보대사 됐다**

연예계 대표 '사랑꾼 부부' 소이현·인교진이 제65회 백제문화제 홍보대사로 나섰다. 소이현·인교진은 3일 오후 1시 30분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제65회 백제문화제 위촉식을 갖고, 양승조 충남도지사로부터 홍보대사 위촉패를 받았다.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사랑 가득한 결혼 생활을 공개하고 있는 두 사람은 다양한 분야에서 떠오르는 활동하며 달달한 연인처럼, 때로는 다정한 친구처럼 알콩달콩 사랑스런 모습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소이현·인교진은 이날부터 제65회 백제문화제 홍보대사로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백제문화제의 위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두 사람은 "백제문화제는 1955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65회를 맞는 역사문화축제이다"며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 강국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국내 축제와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 온 백제문화제가 국내외인이 참여하여 즐기는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



김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에 홍보대사로 선정된 소이현, 인교진씨는 소소한 일상의 매 순간마다 서로 감사하며 미소 짓고, 평범하지만 특별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며 "두 분을 홍보대사로 모시게 돼

기쁘며, 백제문화제의 따뜻한 감성을 국내외에 확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이현·인교진은 홍보대사 위촉식에 앞서 이날 오전 백제문화제를 주최하는 공주시와 부여군을 잇따라 방문해 김정성 공주시장 및 박정현 군수와 각각 환담 및 기념촬영을 실시하고, 제65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국민적 홍보를 다짐했다. 한편, 소이현은 라디오 DJ뿐만 아니라 광고 모델로도 사랑 받아 '2019 MTN 방송광고 페스티벌'의 CF스타상을 수상했고, 인교진은 1월 첫 방송 예정인 JTBC 새 금토드라마 '나의 나라'에서 활약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금산군, 2019년

**군민대상 수상자 선정**

금산군이 올해 군민대상 수상자에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 부문에 김창기씨(60세, 금산읍), 특별공로부문에 유오종씨(53세, 대전)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난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문정우 군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15명이 참석한 '제28회 금산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종 선정했다. 김창기씨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무형문화제 제16호 물계기능요의 보존과 육성에 일조하고 있으며, 2012년 범국민적 홍보를 다짐했다. 유오종씨는 1991년부터 금산인삼골 합창단 지휘자를 29년간 역임해 오면서 각종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문화의 불모지로 불려 지던 우리지역에 수준 높은 합창음악을 뿌리내리게 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헌신해왔다. 군민대상은 매년 각 분야에서 군 발전에 앞장선 군민을 선정해 시상하며 1회인 1991년 이후 총 67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산업진흥, 사회봉사부문은 심사결과 올해는 수상자를 내지 않았다. 시상식은 10월 6일 인삼축제 폐막식에서 갖는다.



우송정보대학 - 고령경영고등학교

**인재 양성 위한 자매결연 협약 체결**

우송정보대학 총장 정상직과 고령경영고등학교(교장 한혜승)와의 자매결연 협약식이 3일 오전 11시 우송정보대학에서 실시됐다. 이번 협약은 새로운 교육문화창달을 위하여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신교육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양성이 주요 목적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대학의 교육시설 및 기자재 사용 ▶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 지원 ▶ 교교와의 각종 학술지원 및 교육·연구·봉사에 대한 공동 활용에 적극 지원 ▶ 대학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과정에 교사 참여 시 우대 ▶ 입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인해 2020학년도부터 고령경영고등학교 당해 연도 졸업생이 우송정보대학을 신입학하게 되면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정복기자



**'할머니가 들려주는 봉우재 이야기'**

관저종합사회복지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금도 발전한 관저동, 가수원동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관저동 일대의 느리움, 봉우재고개, 주막거리, 서당방, 용수터 등 옛 지명이 지금은 어느 아파트의 이름이, 어느 사거리의 이름이, 도로명주소 명칭이 되어 불리고 있다. 도시개발 계획으로 급변한 관저동, 가수원동 일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현재와 옛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소재로 도자기, 사진, 산수화, 풍속화, 등화 등의 창작 활동으로 풀어내 매 주 목요일 관저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영수)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 중이다. 우리 동네 곳곳을 담고 만들어낸 우리의 작품을 모아 오는 9월 5일부터 9일까지 관저종합사회복지관 1층 로비에 '그 곳에, 함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광역시 후원하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협력으로 아트랑도예랑(대표 이명화)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인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김태성기자



충남대학교-해양경찰청 MOU 체결 충남대학교와 해양경찰청이 해양기안분야연구 및 인재양성을 골자로 관·학 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협약을 체결했다.

**공주시, 주요 현안 사업장 현장 방문... 추진상황 점검**

공산성 방문자센터와 구공주의료원 부지 등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2일 공산성 방문자센터와 구공주의료원 부지 등 관내 주요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김정섭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등 15명은 이날 구공주의료원 부지와 공산성 방문자센터, (가칭)월송복합문화센터, 국민안전교육연수단지 등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시장 일행은 우선 구공주의료원 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 둘러보고 공사로 인해 인근상가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수시 점검해줄 것과 활용방안 결정 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

극수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공산성 방문자센터에서는 공사로 인한 관광객 불편 최소화 및 방문객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할 것을 주문했으며, (가칭)월송복합문화센터 현장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기적의 도서관 개관을 기다리는 시민이 많으며 신속하게 추진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난 7월 개원한 국민안전교육연수단지에서는 현황을 청취한 후 농·특산물홍보판매관이 위치한 후생관 및 주요교육시설을 견학하며 연구단지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유지를 약속했다. 시는 앞으로 주요 역점 및 현안 사업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 발전·보완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수=정성범기자

**중소기업음부즈만, 중부권 중소기업과 규제애로 논의**

중기중앙회, 충남·북, 강원 소재 중소기업들과 규제애로 논의



중소기업음부즈만은 3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중부권 중소기업 규제애로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회장을 비롯한 충남·북, 강원지역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했으며, 건의사

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이 직접 참석했다.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 중 ▲LNG 보급 확대에 따른 LPG 판매사업자 지원, ▲출소지공용 일터나눔(그(HUG)기업 인증기업에

조달행정 가점 부여, ▲납품 잔량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보증서) 개선은 관련부처에서 반영 내용을 즉각 검토하기로 했고 다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박주봉 음부즈만은 "기업이 어려울 때 인수국 정부기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함께 공감하며 도움을 드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10월에는 호남권(전북·전남·제주) 규제혁신 간담회를 광주에서 개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원식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회장은 "애로사항 해결 여부를 떠나 현장에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며 음부즈만에 더욱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칼럼

마음이 통하면 만사가 통한다



이창호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어디가요? 지역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다. 그것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를 말한다. 여기서 머리는 생각을, 마음은 행동 또는 실천을 의미한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작금 열린사회의 화두는 단연 소통하는 마음이다. 우리 시대는 통제에서 개방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한 패러다임은

새로운 소통리더십을 원한다. 소통리더십의 기본 원칙은 '진정성과 투명성'으로 '명령과 통제'를 접제하고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공유'로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소통하는 지도자는 낙관주의와 협업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강력한 역할이 아닌 부드러운 촉진자로서 구성원의 소통과 성과를 돕는다. 소통지도자는 리더십이 누구에게나 있는 특성이라 믿으며, 의사결정에 있어 조직 내·외부를 참여시키고 참여를 이끌어 신뢰를 독려한다. 따라서 정치·경제·사회·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다.

게다가 소통리더십의 예는 세종대왕이 그 예이다. 세종은 마음을 얻는 것을 리더십의 첫째로 내세웠던 왕이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27대 왕을 거치면서 세종대왕만큼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왕은 드물 것이다. 세종대왕은 정치, 문화, 사회,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 황금시대를 열었다. 재위 31년 6개월 동안 백성을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잘 살게 하느냐 하고 있는 것을 위한 소통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세종은 자신부터 다스리는 것을 소통의 기본 단계로 여겼다. 지도자의 절제와 희생은 신뢰를 낳는다. 신뢰는 마음을 얻는 것이다. 사적 조직도 그렇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지위가 높을수록 그 지위의 기원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있다.

국민에게 미치는 좋지 않은 일들과 정책 실패의 원인을 다룬데 돌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두면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자신의 진정한 마음에 걸리는 일은 하지 않았다. 자신은 물론 자신의 세력을 위해서 정치와 국정 운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종은 자신의 몸에 많은 병이 있음에도 백성을 위한 군주의 업무를 허투로 하지 않았다. 철저한 자기희생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무엇보다 정책 실행과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자신이 깨달아야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종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세종은 국민을 가장 우선시 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마음이 통하면 만사'가 통한다. 무엇보다 세종은 사람과 생명을 우선시 했다. 사람을 해치고 생명을 파괴하는 의사결정은 아무리 효용성이 높아도 뒤로 미루었다.

국정 책무에서 부자와 권력자가 아니라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나라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빈곤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다. 부모 없는 어린이는 무조건 살리고 보양하게 하며, 출산 휴가 제도를 마련하고 노인복지제도를 신분제에 관계없이 실시했다. 그들을 위한 정책을 1순위에 올렸다.

한편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카리스마, 조직 장악력, 비전, 목표성과, 네트워크 능력이 아니라라는 점을 세종을 통해 알 수 있다. 세종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 세종은 끊임없는 대화와 노력으로 소통하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종의 소통리더십이다. 소통리더십을 통해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지도자가 성공한다는 사실을 세종이 보여준다.

기고

위험한 불청객, 그들이 온다



이진

이산소방서 팀장 119안전센터 센터장

이상 기운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7~9월 소방관들의 출동 70~90% 이상이 벌집 제거 활동에 집중된다. 말벌 개체 수가 최대로 증가하는 지금, 소방대원 벌집 제거

출동 또한 최대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최근 도시개선 작업에 따라 녹지 공간 비율이 높아지면서 말벌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기온 또한 높아져 벌집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도시 내 말벌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벌 쏘임 사망자는 10명에 달했고, 올해도 이미 1명의 사망자가 나타났다. 이송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18년 벌 쏘임 이송환자는 6천여 명, '19년 상반기에는 8천여 명에 달하였다.

불청객인 말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말벌에서 '말'은 '크다'는 뜻의 접두사다. 즉 말벌은 큰 벌이라는 말이다. 말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종인 장수말벌은 몸길이가 어른 새끼손가락만한 5cm에 이른다. 장수말벌은 덩치만 큰 게 아니라 무는 힘도 세고 독침의 독도 강력하

다. 꿀 벌집을 초토화해 양봉 농가를 울리는 녀석들도 대부분 장수말벌이다. 추석 때 벌초나 성묘를 하다가 벌에 쏘여 죽는 경우가 매년 몇 건씩 나오는데 역시 장수말벌이 주범이다.

말벌에 쏘이면 어떻게 될까? 다양한 종류의 독이 한꺼번에 여러 경로로 인체 기능에 영향을 준다. 과민성, 알레르기, 비 알레르기 반응으로 나타나며 대부분 아민류에 의한 반응으로 아픔, 가려움, 부음, 혈관 확장의 증상, 열상을 보인다.

벌 독에 쏘였을 땐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79%에 달해 과민성 쇼크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뱀과 거미 독보다 벌 독이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말벌에 쏘이게 되면 반드시 30분 이내에 병원으로 가야 한다. 이렇듯 환자 이송을 하는 구

급대원들의 필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향수나 향기가 진한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벌을 자극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말벌은 어두운 색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나들이 시 밝은 색 옷을 입는 게 좋으며 모자와 장갑, 긴소매 옷을 착용한다.

벌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외투로 머리와 목을 감싸면서 멀리 달아나도록 한다. 말벌의 경우 30m 이상 달아나면 더 이상 쫓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카드로 긁는다거나 집에 있는 장을 바르는데 하지 말고, 물로 깨끗이 씻어낸 후 염증을 줄여 주기 위해 차가운 물병, 얼음을 맨 후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사설

빼격이는 정기국회, 국민은 불안하다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될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국가예산'을 심의하고 대내외적인 국가위대책 마련,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 시작했다. 그러나 조국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갈 데까지 가면서 국회는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하며 개헌발차했고 해묵은 지역감정까지 부추기는 발언까지 가세하며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회가 아닌 장외로 나섰다. 지난달 24일 서울 집회에 이어 30일에는 부산, 그리고 31일 다시 서울 광화문에서 세 번째 대규모 정의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사퇴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부산집회에서 서울 구청장 25명 가운데 20명이 광주·전남·전북 출신임을 거론하며 부·울·경을 차별하면서 더 힘들게 하는 정권에 대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들이 뭉쳐서 반드시 심판하자며 해묵은 악의적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까지 했다.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는 핑계치고 오로지 내년 총선에만 정신이 팔려 다시금 국민을 분열시키는 뜻된 정치권위가 아닐 수 없다.

지지층을 결집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망국적

인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건 절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지역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선출직 국정장의 출신지를 거론해 편을 가른다는 것은 서울 20개구에 거주하는 시민들 모두는 호남에 몰입돼 사리판단 못하고 구청장을 선출한 것일 수 있고 아니면 현 정부가 관건선거를 자행해 호남출신을 구청장에 당선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던 점에서 참모도 어이가 없다. 정치권을 비롯해 고위 임명직을 기준해 출신지를 분류하기는 해도 선출직 구청장을 상대로 제1야당 원내대표가 지역차별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게 될 일인가.

빼격 이는 국회에 대한 책임에서 민주당도 역시 자유로운 수 없다. 큰 정치를 위해 야당과의 합의를 찾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는지 냉철히 돌아볼 일이다. 한국당의 마이웨이로 방지하는 건 결국 자신들도 내길 가겠다는 것에 다른 아니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씻을 유일한 기회인 이번 정기국회가 파행과 부실로 얼룩지는 큰 책임의 절반은 민주당이 져야 힘을 얻어선 안 된다. 절반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회는 당장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자영업 대출 부실화도 소주성이 문제

자영업자들의 빚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도소매·숙박·음식점 업종 대출금 잔액이 213조5천575억 원으로 작년 대비 119% 증가했다.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세다. 대출 내용과 질도 나빠졌다.

매장 확장이나 신규 점포 등 시설자금 대출 증가율은 2010년 이후 가장 낮아진 반면 인건비와 임차료 같은 운영자금 대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 대출기관도 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4분기 연속 7%대를 유지한 반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은 1분기 26.1%, 2분기 28.6% 등 매 분기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자영업 부실화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뛰어드는 5060세대의 생계형 자영업 비중이 58.4%에 달하고, 전체 근로자의 25.3%(2018년말 기준)가 자영업자일 정도로 과밀화된 상황은 구조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풀어야 할 문제를 보여준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폭탄까지 터뜨렸다. 그나마 다행히도 저소득 근로자들은 현금성 복지 지출과 저임금-단

기 알바직에 의존하며 버텨내고 있지만,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버티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평균치(전년 대비)가 2016년 7.6%, 2017년 7.2%에서 최저임금이 급증한 2018년에 9.5%, 올해 11%대로 급속히 증가한 건 이러한 상황을 방증한다.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총잔액은 636조4천억 원 정도다.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저신용대출금 7~10등급의 경우, 지난 1년간 연체를 경험한 비율이 모든 등급에서 일제히 상승했다고 한다. 자영업 대출 부실화를 일컫는 경고음이 아닐까 싶다.

결국 '연착륙과 구조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투트랙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나 귀농귀촌 정책 같은 구조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대출 부실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 부작용을 해결해야 한다.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주성의 시각지대 해소 등 674만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하나둘씩 풀여가야 한다.

공주시 금학동, 세종시 새롬동과 '우호교류' 다져

공주시 금학동(동장 손애경)은 지난 2일 금학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15명과 함께 자매결연을 맺은 세종시 새롬동을 방문해 우호협력을 다졌다.

위원들은 새롬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시설 견학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살펴봤으며, 오는 28일 개막하는 제65회 백제문화제와 금학주민 작은 예술제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호식 금학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바쁘신 가운데서도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올해 백제문화제 웅진성 퍼레이드 프로그램과 금학동 작은예술제에 새롬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서성석 새롬동 주민자치부위원장은 "서로의 발전을 위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고 보람차다"며, "앞으로 양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 지역은 지난해 8월 자매결연 협약을 맺



은 후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전반에 대한 정보교환 및 고충사항 등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공주=정삼범기자

충남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개최

위원 16명에 위촉장 수여, 국방산업 추진 현황 등 논의

충남도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국방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 등 16명을 위촉했다.

이날 협의회는 김용환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논산·계룡시 부단체장, 군 관련 인사, 국책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의 국방산업 추진 사

항등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국방 국가산업단지 추진 상황 ▲충남국방벤처센터 설립·운영 현황 ▲충남 권역별 산업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방지원체계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공유했다.

김 부지사는 "국방산업과 국방기업 육성, 국방산단 조성 등 국방산업

을 깊게 고민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 국방산업이 육성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논산시 일원에 조성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국방기관·기업유치 추진단을 구성, 내년도 정부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세종시, 추석맞이 다중이용시설 민관합동 안전점검

차역·여객터미널·대형판매시설 등 8곳 인전 강화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4일 이틀간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

한다. 시는 세종시 안전관리자문단 및 소방본부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기차역, 여객터미널, 대형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곳에 대한 건축물 변형·결

함 발생여부, 전기·소방시설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응급조치 후 시안별로 관계부서에 통보해 보완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

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Advertisement for Daedae (大田투데이) newspaper,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KT&G에서  
**당신의 비전을  
 펼쳐보세요**

같은 세상도 다르게 바라볼 줄 아는 당신  
 남다른 시각으로 KT&G의 미래를  
 새롭게 펼쳐나갈  
 비전있는 인재들 있습니다.



2019년 KT&G 신입 - 경력사원 모집

지원 홈페이지: [kpg.recruitment.co.kr](http://kpg.recruitment.co.kr)  
 접수기간: 11월 14일 - 11월 15일 오후 3시까지  
 11월 17일 - 11월 18일 오후 3시까지